

2024
SUMMER

고신대학교 부속병원



Care & Love

이형신 교수 • 이비인후 갑상선 두경부외과



Contents

발행인 최중순 | 발행일 2024년 6월 | 편집인 이형석
발행처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대외홍보협력실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장기려로) 262 | 051)990-3700~2 | www.kosinmed.or.kr
개원일 1951. 6. 21
디자인·인쇄 현대출판인쇄사 051)464-5667

Kosin Spirit

- 04 또 다른 백년 김영대 목사 • 원목실장
- 06 엄마!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아 이정현 교수 • 소아청소년과
- 09 하나님의 예비하심 유나경 • 간호대학 3학년

Medical Essay

- 11 당신의 신경이 괜찮은지 모니터링 합니다 이형신 교수 • 이비인후 갑상선 두경부외과
- 14 내 눈 '촉촉하게 밝게 자신 있게' 김창주 교수 • 안과
- 17 목에 만져지는 혹,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영준 교수 • 이비인후 갑상선 두경부외과
- 19 해외여행 시 모기 조심하세요

Culture & Life

- 20 미국에서 온 편지 김홍일 교수 • 성형외과
- 24 동행 김희자 수필가
- 28 천지를 품은...김해 무척산 노경만 산 • 여행작가

Kosin Inside

- 32 복음병원 명의를 만나다 구유진 기자 • 고신언론사
- 36 칭찬릴레이 '제2의 장기려 박사님을 찾아서'
- 38 내원객이 칭찬해주신 우리병원 친절직원
- 39 원목실 추천도서
- 40 진료를 시작합니다
- 41 포커스뷰
- 46 진료시간표
- 48 KOSin 사랑in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또 다른 백년



김영대 목사·원목실장

알렉산더 플레밍은 열악한 연구실의 깨진 유리창 때문에 페니실린의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평균 연령이 40대였는데, 오늘날의 80대로 이끄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에디슨은 폭발사고로 한 쪽 청력을 잃었지만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축음기를 발명했습니다. 시대를 이끄는 개척자들에게는 자신의 상황과 한계를 뛰어 넘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병원은 새 병원장님을 중심한 집행부가 구성되어 또 다른 100년의 역사를 개척하고자 합니다. 지금 복음병원이 어떤 목표와 목적을 추구하는가에 따라 복음병원의 내일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미래를 개척하는 사명자에게는 환경, 인식, 현실의 장벽이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이 넘지 못할 장벽은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주의의 한계에 갇힌 초대교회였지만, 빌립은 사마리아의 장벽을 뛰어 넘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민족적, 지리적, 문화적 장벽을 뛰어 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억압, 핍박과 살상이 있었지만 사도행전 전반부의 결론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행9:31)**” 입니다. 현상의 모습은 비극적이고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는 부흥과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하나님께서 설립하셨고, 경영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노력과 수고보다 수십 배, 아니 수백 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또 다른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영적인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후반부는 인간의 능력과 인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인식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행 9:32)”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이성적인 행동이 아니었는데, 핍박과 박해가 극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잠시 몸을 숨기고 피해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인간의 이성과 세계관에 이끌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새 역사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음병원이 과거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역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피하고, 숨고, 부인하고 외면했던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라 8년된 중풍병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행9:34)”고 외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물이 끓는 온도는 100℃인데 이 때의 물은 액체도 기체도 아닌, ‘Critical Point’ 즉,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체로 살지만 그리스도의 임재로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Critical Christian’입니다.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임계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후반부의 그리스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인간의 이성과 인식으로는 이해, 해석,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복음병원의 역사도 그럴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적 열정, 인간의 수단이 아니라 복음병원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후반부를 여는 기사가 욕바의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고(행9:37)”,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웠다고 의사 누가가 설명했습니다. 죽은 시체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행9:40)”고 외쳤습니다. 그 때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사도행전 후반부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지는 또 다른 예수로 존재 했었습니다.

새 복음병원 집행부와 전 복음가족이 도전해야 할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자아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보여지는 그리스도가 될 때 복음병원은 새로운 역사의 중심에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그 때 복음병원 앞에는 어떠한 장벽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임계의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영적 경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책임질 하나님의 아들이며 시대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됨을 확신함으로 믿음으로 장벽을 뛰어넘을 때 복음병원의 또 다른 100년을 창조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런 복음병원을 기대합니다. 마라나타! ✨

엄마!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아 -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함으로



이정현 교수·소아청소년과

저의 어머니는 저를 품으셨을 때 산모와 태중의 아이를 포기하라는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외할머니와 아버지께서는 택시에 어머니를 태우고, 비포장도로를 달려 이곳 부산까지 달리셨고, 그렇게 저와 어머니는 둘 다 살 수 있었습니다.

부산이 고향은 아니지만, 부산을 생각하면 고향 같고 감사한 마음이 큼니다. 부산에서도 어머니께서는 태중의 아이는 살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들으셨지만, 감사하게도 저는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어머니와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과 이룬둥이인 저를 돌보셨을 소아청소년과 선생님을 생각하면,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의학적인 경험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우리 복음병원에서 교수로서 첫 근무를 시작하면서 2007년 만났던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생후 29개월에 유전자 검사에서 선천성 희귀난치성 질환인 장쇄 지방산 산화 장애 중 하나인 '장쇄 수산화 아실 코에이 탈수소효소[Long-chain 3-hydroxyacyl-CoA dehydrogenase (LCHAD)]결핍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글리코겐이 에너지로 모두 전환되면 지방산을 분해해 에너지를 다시 생산해 내는데, 이 아이는 지방산을 에너지로 바꾸는 효소 중 하나인 LCHAD가 없고, 지방산이 대사되는 과정 중에 생성되는 전구물질에 의해 근육이 분해되는 횡문근용해증이 발생해, 칼로 베는 듯하고 망치로 때리는 것 같은 극심한 근육 통증을 느낍니다.

아이는 목이 아프거나 장염에 걸려서 잘 못 먹을 때, 독감 같은 고열이 있을 때, 아침을 조금 늦게 먹었을 때, 마음이 힘들거나 학교 시험 등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을 때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을 가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병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고, 건다가 쓰러져 복음병원 응급실에 실려와 1주일 넘게 입원한 횡수만 100회가 넘었습니다.

한 번은 아이의 외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손녀의 상황이 손바닥에 곧 터질 것 같은 홍시를 올려놓고 있는 느낌이라고...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가족의 마음이 어떠할지 저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치료약은 없고, 병원에 오면 근육분해가 멈추도록 고농도 포도당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전 공의 선생님들과 함께 오랜 세월 동안 아이의 응급상황을 함께 하며, 그래도 회복이 되고, 견뎌내 주는 아이와 가족들이 그저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도무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와 같은 질환에 걸렸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의학적인 경험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하나님께 부디 아이와 이 가정이 생명을, 그리고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이의 상태는 곁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많은 만성 질환이 그렇듯이 오랜 시간 질환과 함께하며 아이의 마음도 힘들어져 갔습니다.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며 어떻게 더 잘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는 부모님께 집중적인 기도를 부탁드렸고, 소아청소년과 교수 기도회(평일 점심시간에 드리는 환자와 병원을 위한 기도시간)에서도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고3이던 2022년 가을의 어느 밤, 아이는 또다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새벽에 아이를 입원시키고, 그 날 밤 늦은 퇴근을 하면서, 엠평안님의 '요게벳의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 나일강의 띄워둔 엄마 요게벳의 마음이 담긴 찬양입니다.

가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찬양을 듣는데, 정말 눈에서는 멈출수 없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생각,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지새우고 다음날 아침에 아이의 어머니께 이 찬양을 소개드리며 큰 용기를 내어 “교회 갑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아이 어머니께 들은 얘기입니다. 어머니는 불교 집안이었으나 어릴 적 어머니께서 사주신 문학전집 <성경 이야기>에서 모세 이야기를 읽은 기억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찬양을 들으며 어릴적 읽은 모세의 이야기를 생각하니 갓난아이를 바구니에 넣어 강물에 띄울 때 그 심정은 어땠을지 노래를 들으며 한참 우셨다고 합니다.

요게벳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크고 강했기에 그리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고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

실지 궁금해하셨다고 합니다. 요게벳이 믿는 하나님께서 딸을 지켜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그렇게 2022년 9월 교회에 가신 후 새신자반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다음해 부활주일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사이 아이는 VIP병실에서 수능 시험을 무사히 치렀고 멋진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이도 신앙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어머니를 따라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아이의 아버지도 부인과 딸이 예수님의 사랑 속에 심적인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부활주일에는 아이와 아이의 아빠가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최근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내가 힘들었던 게 아파서였기도 하지만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겸손을 몰랐을 거야. 아파서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내가 가진 질환 때문에 내가 별 것 아니구나. 잘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았는데, 특히 죽음이 너무 무서웠는데,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다시 부활하셨고, 지금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있으니 이제 죽음은 무섭지 않아!”

스무살도 되지 않은 아이의 입을 통한 신앙 고백이 저를 다시 울렸습니다. 요즘은 아이를 응급실이 아닌 교회에서 만 만나고 있습니다. 그 얼굴엔 두려움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 가득합니다. 다른 가족들도 그 평안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행 16:31

이 말씀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원의 과정 중에 우리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을 통로로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아이와 가족은 더 아름다운 믿음과 승리의 삶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 ✨



이정현 교수 | 소아청소년과

+ 전문진료분야

성장클리닉(성조숙증, 저신장), 내분비대사질환(고신장, 사춘기 지연, 갑상선질환, 당뇨병, 저혈당, 비만, 칼슘 및 인 대사 장애, 기타 영양 장애)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오후	외래		외래	외래	

하나님의 예비하심



유나경 간호대학 3학년



어린 시절 권사님이었던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교회로 갔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푸른 나무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수 있던 친구들이 있던 교회는 저에게 재미 있는 놀이공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유치부, 아동부를 거쳐 중고등부에 진학하게 되었고 더 이상 교회는 놀이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에 있어서 첫 번째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중학생이 되어 찬양팀으로 섬기기도 하고 수련회에 가서 함께 뜨겁게 찬양과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히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지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것을 눈으로 보며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인가?”, “의구심을 드러내는 나의 모습이 죄를 범하는 것일까 하며”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도중 고등학교 1학년 때 말레이시아로 두 번째 해외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여서 그런지 별다른 긴장이 되지 않았지만 그때와는 다르게 진로에 대한 고민과 걱정들을 가진 채 여러 번의 집회와 예배, 기도회를 준비하며 떠날 날만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던 와중 다시 찾았던 그곳은 여전히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어려웠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곳을 섬기시는 선교사님과 동행하던 중 한 무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딱 봐도 몸이 좋아 보이지 않던 그들은 병원이 너무 멀어서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없고 약 또한 구하기 힘들었기에 선교사님들이 가져오시는 약만 먹으며 고통을 참는다고 했습니다.

한 산모는 산전 관리를 하나도 받지 못하고 출산 날 처음으로 병원에 가게 된다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무언가에 홀린 듯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의료인이 되겠다며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시기가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큰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선교에 비전을 품은 고신대학교 간호학과에 입학했지만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게 되어서인지 많은 양의 암기 과목을 다 쳐내지 못하였고 이러한 제 모습을 통해 점점 무너지는 것 같았고 “정말로 내가 의료인의 길에 맞는 사람인 것인가?” 생각하며 혼자서 혼란스럽고 힘든 방향의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학년을 끝마치고 우울했던 시기를 보내던 중 동아리 간사님의 추천으로 필리핀 두게가라오에 의료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의료선교에 대해 계속

해서 비전을 품었기에 떠나던 그 순간까지도 기대되는 마음이 컸지만 한편으로는 “나의 이런 마음을 가진채로 선교를 떠나도 괜찮을까?”와 같은 의구심이 계속해서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QT책을 통해 청년의 시절 많은 것을 경험 해봐야 한다는 성경 구절을 보여주셨고 선교의 길을 예비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려움과 설렘이 공존한 채 선교지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많았던 저와는 다르게 도착한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새로운 길로 가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많은 저에게 매 순간 새로운 상황을 경험하게 하였고, 제가 가지 못한 길에 대한 믿음을 주셨고 제가 옳지 않은 길로 빠지려 할 때는 그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수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앞서 이야기 한 상황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적으로 위기를 겪을 때 마다 늘 선교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그 속에서 답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늘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일상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떻게 선교지에서 배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일상에서 흘려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직장에서 직장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 등 정말 많은 고민을 하던 도중 실습 현장에서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서 실습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힘쓰시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모든 실습 병동이 다 인상 깊었고 많은 배움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영적 간호학 실습을 했던 호스피스 병동이 저의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환자분과 눈을 맞추며 이야기 할 수 있었던 것도, 함께 손을 잡으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눈물 흘리며 찬양 할 수 있었던 것도 사랑이 담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모든 것이 은혜였고 감사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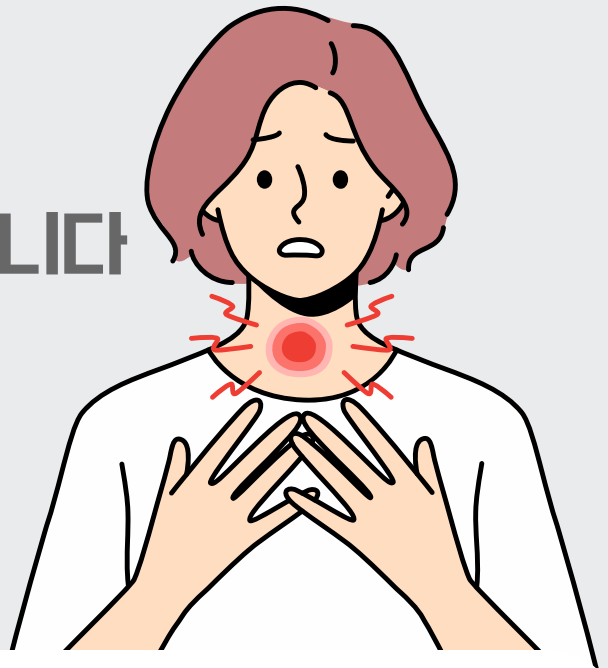
저는 앞으로도 수많은 시련에 부딪칠 것이고 수많은 고난들에 걸려 넘어질 것이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고 주어진 것들에 대해 힘들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시며 우리의 길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심을 믿고 함께 나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당신의 신경이 괜찮은지 모니터링 합니다



이형신 교수·이비인후 갑상선 두경부외과



갑상선 수술을 할 때 반회후두신경 (recurrent laryngeal nerve)이라는 신경을 만나게 되는데, 이 신경을 잘 확인하고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신경은 목의 양측에 하나씩 있는데, 각각 좌우의 성대 운동을 지배합니다. 즉, 목소리를 내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나는 환자분들에게 편의상 '성대신경'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신경은 양측 갑상선 바로 뒤로 바짝 붙어서 지나가기 때문에 갑상선을 절제하려면 이 신경과 갑상선을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수술 중에 이 신경이 손상 받으면 해당측 성대가 마비되어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대는 양측에서 박수치듯이 서로 진동해서 소리를 내는데, 한쪽이 움직이지 않으면 성대가 제대로 진동하지 못해 원소리가 납니다.

또한, 성대는 우리가 삼킬 때 음식물이 기도(뱃)로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성대 마비가 발생하면 성대 사이에 틈이 생기니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서 발작적인 기침이 날 수 있고 심할 경우 폐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말하고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런데 이 두가지 기능에 모두 문제가 생기니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갑상선 수술을 하는 의사는 반회후두신경을 수술 시작부터 끝까지 염두에 두고 늘 주의하면서 수술합니다.

수술 중 신경모니터링 (intraoperative neuromonitoring)은 갑상선 수술하는 의사에게 성대신경의 위치

와 주행방향 그리고 신경의 기능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매우 유용한 기술입니다. 수술 중 신경 모니터링은 여러가지 용도로 활용될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수술 중에 신경의 마비 위험을 알려주는 기능 한가지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경 자극기를 신경에 갖다 대면 전기 자극이 신경을 통해 성대근육으로 전달되어 근전도 신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그림1). 이 신호가 제대로 확인되면 신경이 손상 없이 잘 보존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림 1. 수술 중 신경모니터링으로 신경을 자극해서 얻은 근전도 신호이다.
3 mA로 신경을 자극하니 성대근육에서 936 μ V의 전위 (amplitude)가 발생했다.

그런데, 갑상선 수술을 하다 보면 갑상선 종양이 크거나 신경과 종양이 붙어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불가피하게 종양과 신경을 분리하기 위해 성대신경이 당겨지게 됩니다. 성대신경을 당기는 힘이 커지면 신경 섬유들이 손상 받게 되고 서서히 신경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신경이 절단되는 등의 직접적 손상이 없어도 갑상선 수술 후에 성대마비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술 종료 후에 환자를 깨워 봐야만 내시경을 통해 성대마비 여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술 중 신경모니터링 기술로 신경을 자극해서 얻은 전위 (amplitude)가 현저하게 떨어지면 수술 후 성대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림 1에 관찰되던 936 μ V가 수술 중에 150 μ V로 떨어지거나 신호가 전혀 잡히지 않는다면 신경 기능이 저하 또는 상실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수술 중에 당김으로 신경의 전위가 떨어진 경우, 속히 당기는 힘을 풀어주고 20분 정도 기다리면 떨어진 전위가 서서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전위가 원래대로 회복된 경우에는 수술 후 성대마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니터링 하지 않았다면 신경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수술을 진행했을 텐데, 이 기술 덕분에 신경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영구적인 신경의 마비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득 이와 같은 모니터링이 우리 마음에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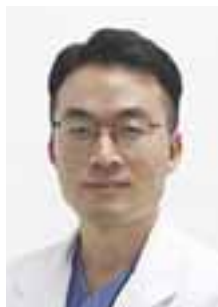
우선은 내 주변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 지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나의 가족, 친구, 동료, 환자. 나에게 소중한 그들은 괜찮은가? 신경을 당기면서 갑상선 종양을 절제할 때, 이 정도의 힘은 쥐도 괜찮겠지 추측만으로 수술했다가 신경이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무엇 때문에 힘든 지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스트레스는, 그 정도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 아닐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상대가 그 스트레스를, 그 어려움을 정말 잘 견디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같은 힘으로 신경을 당겨도 신경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다른 누군가는 이로 인해 성대 마비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의 상태, 특히 그 마음을 모니터링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관찰'과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사람의 표정, 목소리, 행동의 변화를 관심있게 관찰하고 있는가? 나는 그 사람에게 '괜찮아'라고 물어보는가? 아니 그 전에, 나는 그 사람에게 괜찮은 대화 상대인가? 그 사람은 지금 마비가 오기 직전의 신경처럼 곧 무너질 수 있는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대화합시다. 그리고 물어봅시다. "너 괜찮아?"

그리고 또 소중한 한 사람. 바로 나. 나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에게 물어봅니다. 너 괜찮아? 



이형신 교수 | 이비인후 갑상선 두경부외과

+ 전문진료분야

두경부 종양(구강암, 비인두암, 후두암, 설암, 갑상선암, 침샘암, 이하선암), 성대 보톡스, 성대 필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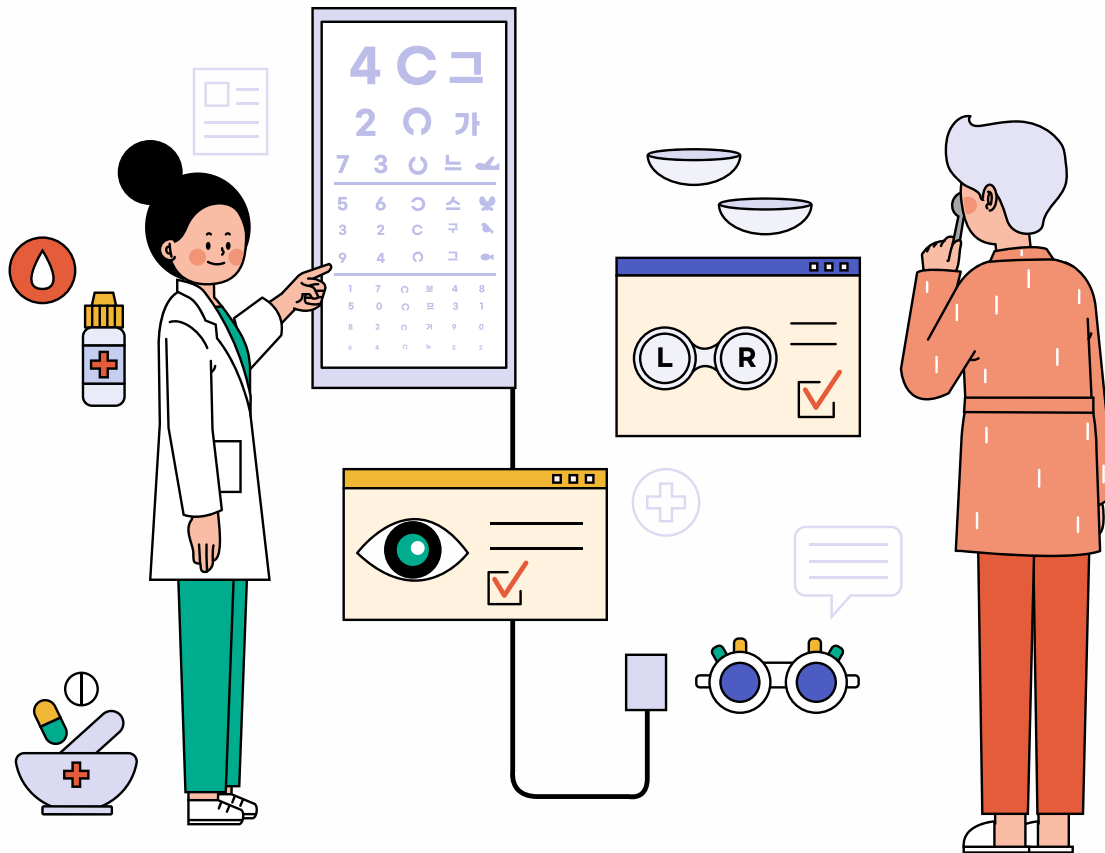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외래		
오후		외래			

이형신 교수는 갑상선 수술 중 음성 보존을 위해 수술 중 신경모니터링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SCI급을 포함한 10여편의 관련 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한신경모니터링학회의 수련이사를 맡고 있으며, 개정 출판될 대한두경부외과학회 교과서의 '수술중 신경모니터링' 챕터를 집필했습니다.

내 눈 ‘촉촉하게 밝게 자신 있게’

 김창주 교수 · 안과



촉촉하게

안과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도 인공눈물 한 두 번 눈에 넣어본 적은 있을 겁니다. 안구건조증은 눈물의 분비가 감소하거나 눈물의 질이 변화하여 발생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상태의 눈은 안구의 자극감, 모래가 굴러가는 듯한 이물감, 눈이 타는 듯한 작열감, 침침함, 가려움, 눈부심 등 다양한 증상을 보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특히 건조한 환경에서 장시간 집중하여 눈을 사용할 때 심해지며, 바람이 많이 부는 곳, 햇빛이 강렬한 곳, 공기가 혼탁한 곳에서도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의 원인은 노화, 동반 질환(류마티스성 관절염, 쇼그렌 증후군,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만성 결막염, 갑상선 질환, 여성호르몬 감소, 특정 약물 복용, 환경 요인 등으로 다양합니다. 진단을 위한 검사로는 눈물의 안정성에 대한 검사, 세극등 현미경 검사, 쉬르머 검사, 각막 염색 검사 등이 있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일차적으로 증상을 조절하기 위한 인공눈물을 통한 양적인 공급과 눈꺼풀 청소, 눈물점 폐쇄 등이 있습니다. 환경 조절을 통한 예방도 중요한데 가습기 사용, 보호안경 착용, 흡연 중단, 눈을 자주 깜박이고 휴식을 취하는 것 등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안구건조증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하여 안구건조증에 대한 원인을 찾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밝게

안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중 하나는 백내장 수술입니다. 백내장은 눈의 구조물 중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질환으로 시력 저하 및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을 일으킵니다. 이는 주로 노화와 관련이 있지만 외상, 당뇨병, 특정 약물의 사용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 증상으로는 흐릿한 시야, 복시, 눈부심 증가 등이 있으며 수정체의 혼탁이 진행될수록 시력 저하가 심해집니다.

백내장은 세극등현미경 검사와 같은 눈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고, 수술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치료에 흔히 사용되는 수술법은 각막에 작은 절개를 내고 그 절개창을 통해 기구를 넣어 손상된 수정체 내부를 초음파로 유화시킨 후 흡입합니다. 그 후 투명해진 수정체 낭을 확인한 후, 사전에 적절한 굴절값으로 계산된 인공수정체를 남아있는 수정체 주머니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에는 초점을 하나의 지점에 맞추는 단초점 렌즈만 있었지만, 이후 3초점, 다초점, 근거리에만 효과를 더 주는 렌즈까지 다양하게 환자에게 필요한 형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술 시간은 10분 내외로 짧지만, 수술 후 관리를 잘하지 못한다면 감염이나 후유증이 남아 영구적인 시력 저하가 생길 수도 있기에 적극적인 수술 후 관리도 필요합니다.

백내장 예방을 위해서는 적절한 자외선 차단,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백내장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비타민과 항산화제가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백내장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진행을 늦추는 치료도 있고, 너무 이른 시기에 수술을 고려하기보다는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 있게

의외로 안과에서 많이 진행하는 수술 중 하나가 눈꺼풀 처짐에 대한 것입니다. 이 질환은 눈을 뜨는 근육의 약화나 기능 이상으로 인해, 윗눈꺼풀이 정상 위치보다 아래로 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인으로는 유전성, 신경 무형성, 근육 발달 이상을 포함한 선천적인 경우와 노화, 외상, 염증, 신경 손상 등의 다양한 후천적 원인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후천적 안검하수에 대해 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대개 노화로 인한 근육의 약화나 연결 조직의 변화로 발생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눈꺼풀 처짐은 단순히 미용 적인 문제를 넘어 시야를 가리고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인에서는 눈꺼풀 처짐으로 아래 시야를 주로 보게 되어 고개를 뒤로 젖히는 자세를 취함으로 인해 두통이나 목의 긴장감과 같은 증상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진단은 일반적으로 환자의 병력 청취와 신체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신경학적 검사나 영상 진단을 통해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눈꺼풀 처짐의 원인과 처짐의 정도, 그리고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치료 방법은 수술적 교정이며, 이는 늘어진 피부부를 절제하여 눈꺼풀의 위치를 변화시키거나 근육을 접착하거나 당겨 붙이는 형태로 떨어진 눈꺼풀을 원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됩니다.

수술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마 거상술, 눈썹 위 거상술, 눈썹 하 거상술, 상안검 성형술이 있습니다. 가장 흔히 시행되는 것은 상안검 성형술이며 눈꺼풀올림근 절제술, 이마근 절기술, 결막 뿔러근 절제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눈꺼풀올림근 절제술은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근육을 단축해 그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이며, 이마근 절기술은 이마 근육을 이용하여 눈꺼풀의 위치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결막 뿔러근 절제술은 눈꺼풀의 내부 구조를 조정하여 눈꺼풀을 올리는 수술입니다.

수술 외에도 보존적 치료 방법이 있으며, 이는 주로 가벼운 눈꺼풀 처짐이나 일시적인 마비로 인해 수술적 치료가 적절하지 않은 환자에게 적용됩니다. 보존적 치료에는 눈꺼풀 테이핑, 특수 안경 착용, 약물 치료 등이 있습니다. 눈꺼풀 테이핑은 눈꺼풀을 임시로 올려 시야를 확보하는 방법이며, 특수 안경은 눈꺼풀을 지지하여 처짐을 방지합니다. 중증근무력증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약물 치료는 근육의 기능을 향상 시키거나 염증을 감소 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중년의 적극적인 눈 관리로 이제는 ‘촉촉하게, 밝게, 자신있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



김창주 교수 | 안과

+ 전문진료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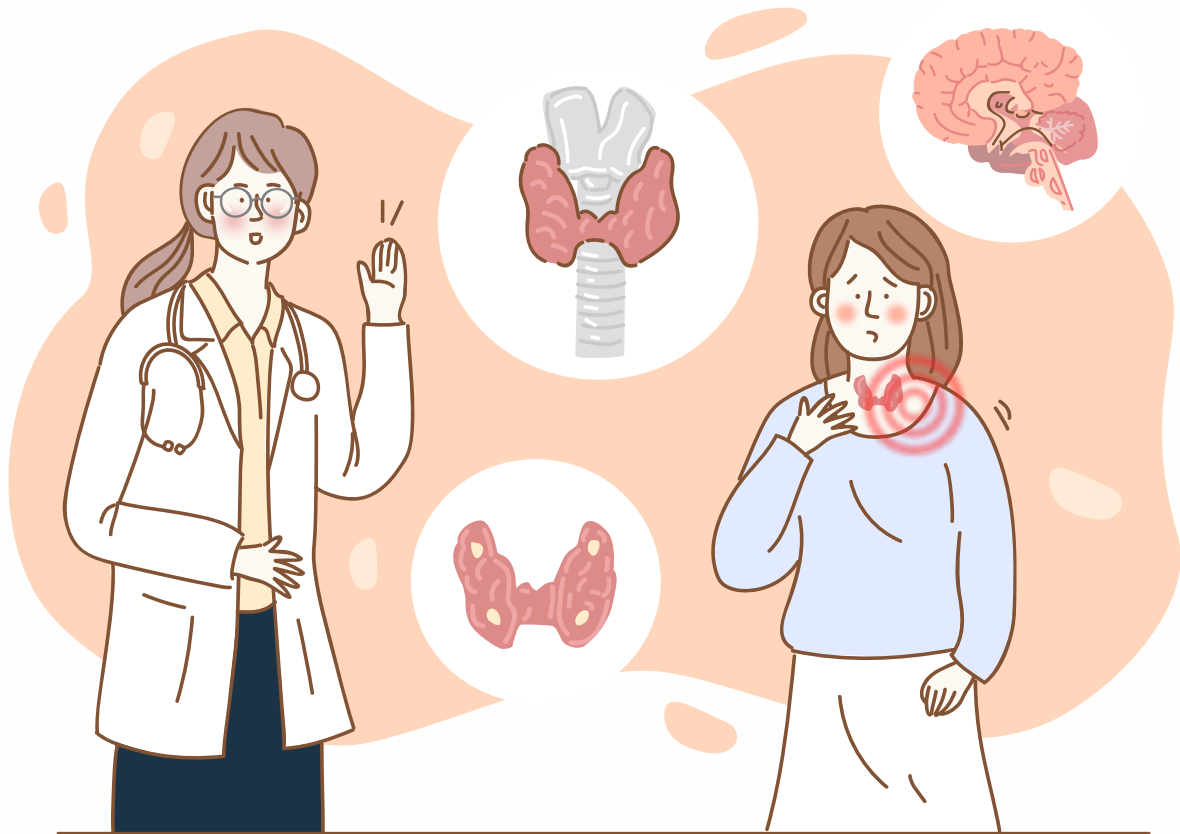
사시, 소아안과, 신경안과, 안종양, 안외상, 눈물길, 근시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오후			외래		외래

목에 만져지는 혹,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영준 교수·이비인후·감상선·두경부외과



우리 목에 혹이 만져지는 경우는 여러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목이 아프면서 목에 멍울이 며칠 만져지는 경우도 있지만, 멍울이 점점 커지면서 혹시 암과 같이 위험한 병이 아닐까? 혹시 수술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불안해질 때도 있습니다. 차근차근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 어떻게 할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의 입장에서 진찰을 할 때 저희는 우선 환자분의 병력을 들어보고, 촉진 등 진찰을 하고, 이후에 각종 검사를 하게 됩니다. 먼저 면담을 하면서 환자분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혹이 생긴 지 얼마나 되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이 혹이 염증인지, 선천적으로 생긴 혹인지, 아니면 종양인지 구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신체 진찰을 하면서 만져보게 되는데, 크기, 모양, 위치, 딱딱한 지, 잘 움직이는지, 통증이 있는 지 등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40세 이상에서 혹이 딱딱하거나 고정되어 있다면 암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니 이런 경우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상검사는 초음파, CT, MRI 등이 있는데 비싸다고 다 좋은 검사가 아니라 검사 별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조직검사는 일반적으로 주사 바늘로 찔러서 세포를 채취하는 세침 검사가 가장 흔하고 부담없이 시행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굵은 바늘로 검사하는 총생검 검사를 하거나 외과적으로 혹을 절제하여야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진단을 하게 되면 이 혹에 대해 치료를 하게 되는데 먼저 염증 쪽, 곧 감염성 질환은 보통 소염제, 항생제,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 치료를 우선 시행하게 됩니다.

단순 림프절염의 경우는 2주간의 치료로 대부분 크기가 줄어들거나 사라집니다. 이보다 오래 지속되는 경우는 보통 세침검사나 CT 등 추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염증성 질환 중에서도 결핵과 같은 경우는 약을 장기간 복용하여야 하고, 고름이 찬 경우는 절개해서 고름을 배농해 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생긴 혹은 일반적으로 태아 시절에 성장하는 과정과 관련하여 남아있는 구조물에서 생기게 됩니다. 종양 중 암이 아닌 경우, 양성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양성 종양은 침샘종양, 신경종양, 지방종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증상을 일으키고 있을 때, 염증 이 반복될 때, 또는 잠재적으로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을 때 수술하게 됩니다.

악성 종양, 곧 암은 목에서는 갑상선이나 침샘과 같은 곳에서 암이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위치에서 암이 발생하여 림프절에 전이가 발생한 상태에서 목에 만져져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경부, 곧 갑상선, 구강, 인후두, 침샘 등 목에서 발생하는 암에서 발생하여 전이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다른 장기에서 이동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조직검사로 암으로 확인이 되면 병이 시작된 위치 등을 각종 검사를 통해 확인하여 병기를 결정하고 수술이나 항암방사선 등 암의 종류별로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



김영준 교수 | 이비인후 갑상선 두경부외과

+ 전문진료분야

두경부 종양(구강암, 비인두암, 후두암, 설암, 갑상선암, 침샘암, 이하선암), 인후통, 편도, 성대, 혀마름, 임파선 비대, 목의 혹, 입술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오후			외래		외래

중남미·동남아시아 등 Dengue 열 유행

해외여행 시 모기 조심하세요!

여행 전



방문지역별 주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세요.

• 해외감염병NOW누리집 → 국가별 감염병 예방정보

모기예방물품(모기기피제, 모기장, 밝은색 긴 옷 등) 및 **상비약**을 준비하세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http://www.0404.go.kr>)에서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여행 중



외출 시 **모기기피제를 3~4시간 간격으로 뿌리고**, **밝은 색 긴 옷을 착용**하세요.

현지에서 Dengue 열 감염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24시간 운영되는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 및 **방문 지역 재외공관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입국 시



의심 증상이 있을 시 **검역관에게 증상을 신고**하고, **Dengue 열 무료검사를 받으세요.**

여행 후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으세요.

미국에서 온 편지



김홍일 교수·성형외과



안녕하세요,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김홍일입니다. 2023년 7월, 더 깊이 있는 재건성형과 미용성형을 공부하기 위해 UC Irvine 성형외과로 연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얼바인은 캘리포니아 남부에 위치한 계획 도시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이 돋보이는 곳입니다. 이 도시는 1960년대에 개발이 시작되어 현재는 UC Irvine 대학을 중심으로 주거지와 교육 시설이 많은 지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구의 1/5 정도는 대학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니 이 도시와 대학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서로 발전해 가는 것 같습니다.



무지개가 뜬 얼바인 도시 풍경

날씨는 일 년 내내 온화하여 생활하기 좋고, 다양한 문화 행사가 펼쳐져 풍부한 삶을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UC Irvine은 3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인 명문 대학으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와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한 연수 프로그램은 수술과 진료에 참관하며 미국과 한국의 수술 방법과 차이점을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가 달라 걱정을 많이 했지만, 다양한 발음을 가진 이민자의 나라라서 제 발음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손짓 발짓을 하니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미국 수부외과 학회에서 진행되는 Travelling Fellow 프로그램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여 독일, 칠레, 대만의 의사들과 함께 인디애나폴리스 수부센터, 오하이오 주립대학병원, 미시시피 주립대학병원 등 미국의 여러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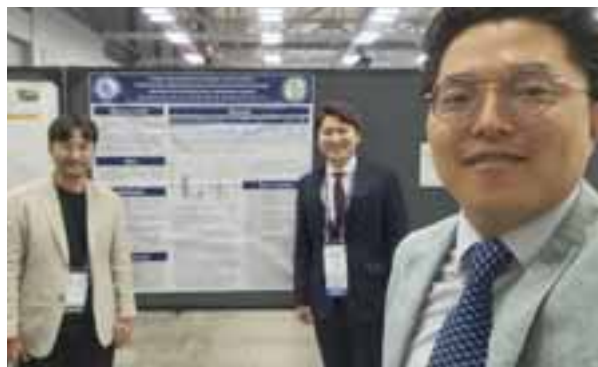
미국수부외과학회 Travelling Fellow 프로그램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많은 의사들과 교류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었으며, 다양한 수술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한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미국 수부외과 학회와 텍사스에서 열린 미국 성형외과 학회에도 참석하여 유익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텍사스에서 열린 성형외과 학회는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깊었습니다. 그리운 의국 동료들이 저의 집에 와서 함께 지내며 학회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동료들과 함께 학회에 참석하며 학문

적 토론을 나누고,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곳에 와서 한국과 크게 다르다고 느낀 것은 미국의 외래 진료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의사가 한 방에서 환자를 진료하지만, 미국에서는 복도식으로 작은 방들이 여러 개 있고, 각 방마다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방을 순서대로 돌면서 진료를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학회에서 만난 의국 동료들

반나절에 80명에서 100명 정도의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보니, 미국 의사들도 매우 바쁘게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입원 환자가 거의 없고 대부분 외래 환자 중심으로 수술 후 집에 가서 쉬는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같으면 1주일씩 입원해 있어야 할 환자도 당일 수술을 마치고 집에 보내는 것을 보니 참 놀라웠습니다.

수술실에서는 수술 스케줄이 빡빡하게 돌아가는 것은 비슷하지만, 수술실에 들어올 때 신발을 벗지 않는 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술실에서 외부신발을 벗지 않고 그대로 신고 들어오는 모습은 문화적 차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충격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수술방에 운동화를 신고 들어옵니다.
그 와중에 양말은 짝이 안 맞습니다.

얼바인에서의 생활은 매우 조용합니다. 얼바인이라는 도시는 계획적으로 개발된 곳이라 매우 안전하고 평화롭지만 물가는 한국의 약 두 배 정도로 느껴져 생활비가 많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연수프로그램으로 이곳에 와서 무상 공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학교 행사가 많아 부모 참여가 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과 학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른 서양인 학부형들과도 친해져 집에 초대받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신발을 신고 다니는 문화에는 여전히 적응이 안 됩니다.

여기서 LA와 샌디에이고는 가까운 거리지만, 방문해보면 부산보다 덜 번화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숙자가 많아 다소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또 한가지 놀라운 점은 아무리 큰 도시라도 사람들이 밤에 밖에 잘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길 거리에 걷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마치 모두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공

휴일이면 저희는 도시보다는 자연 속에서 지낼 수 있는 공원이나 바닷가를 주로 찾아다녔습니다. 특히 태평양이 펼쳐진 모래사장이나 기암괴석이 즐비한 국립공원을 자주 찾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베델교회라는 한인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상보다 큰 규모와 깊은 신앙심을 가진 교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예배를 통해 저의 믿음도 깊어지고 정돈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교회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평일에는 한국인을 위한 초등



학교에서 빙고 게임하러 학생과 학부형이 모였습니다.



태종대 같은 미국 서부 해안 절벽

학교, 성경공부, 한글학교, 전도 활동, 자전거 동호회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생명력 넘치는 장소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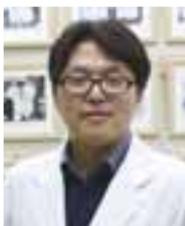
특히 한국에 있을 때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교회 일을 거의 하지 않았던 제가 이곳에 와서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겼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곳 교회에서 자진해서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것을 시작으로 점점 더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순간마다 찾던 하나님이

아닌, 내가 평온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아마도 연수 기간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새로운 수술 기술을 익히고 학문적으로 연구의 깊이를 더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미국 사회를 보며 많은 교훈을 얻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소중한 경험도 했습니다. 이번 연수를 허락해 주신 병원장님과 학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



교회 화단에 꽃도 많이 피서 사진을 한 장 찍었는데 딸이랑 꽃이랑 구분이 잘 안됩니다.



김홍일 교수 | 성형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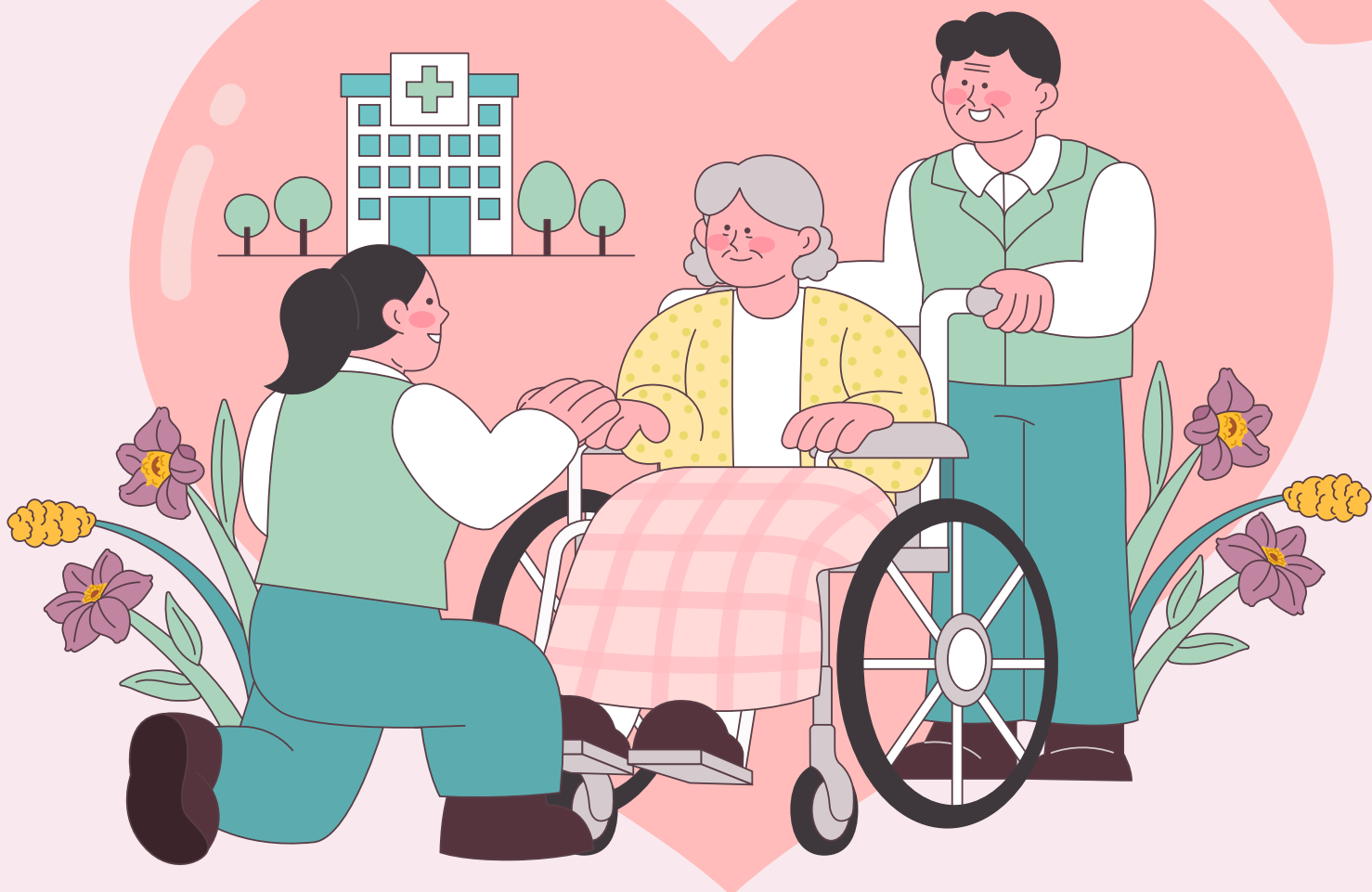
✦ 전문진료분야

수부질환, 수부외상, 선천기형, 두개안면외상, 피부종양, 흉터성형

동행



김희자 수필가



천하를 들뜨게 한 꽃이 가고 연두가 왔다. 점점이 피었던 산 벚꽃마저 지고 나니 연두의 물결이 일렁인다. 내 몸은 한없이 무겁건만, 사월의 산야는 더없이 싱그럽다. 읍내로 갈 차를 기다리며 설혹산 자락에 빠져있다. 하늘 볼 틈 없이 살아도 마음은 고향의 자연 속에 머문다. 고향에서의 하루하루가 의미 있다. 내가 이곳에 사는 이유이다.

오늘은 뒷집 엄마와 원재 오빠와 영선 언니를 모시고 외출하는 날이다. 잠을 설치 몸은 나른하지만, 약속은 지켜야 한다. 며칠 전부터 원재 오빠와 영선 언니는 소풍 가는 날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들떠 있었다.

이틀 전, 오빠 댁에 갔더니 “동승, 언제 옷 사러 갈 건고?”하시며 동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며칠 후면 마을에서 봄나들이를 가기 때문이다. 그때 입고 갈 옷을 사달라는 손짓이었다.

원재 오빠 내외는 장애인이라 내가 돌보고 있다. 신체와 지적 장애가 있지만, 자기 생각은 뚜렷하고 나름 께도 부릴 줄 안다. 그들의 동행에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봄나들이에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오늘은 시간이 주어져 그들의 옷을 사드리려고 한다. 홀로 외출할 수 없는 뒷집 엄마도 모시고 나가려는 참이다.

요양병원에서 집으로 오신 뒷집 엄마는 며칠 전부터 미용실에 가고 싶어 했다. 오빠네 옷 사러 가는 길에 뒷집 엄마는 미용실에 모시고, 오는 길에 함께 오면 될 거 같다. 노쇠하고 소통하기 어려운 분들을 모시고 동행하기란 쉽지 않지만, 운명처럼 내게 주어진 일이다.

며칠 전, 석봉이 엄마의 요양보호를 마치고 집으로 왔다. 해는 어느새 앞산 너머로 저물어 어스름이 깔려 있었다. 냉장고에 든 조기를 꺼내어 서둘러 뒷집으로 갔다.

“엄마, 저녁밥 드십시다.”

“그래, 배가 고프네. 어서 목자!”

아흔한 살인 뒷집 엄마는 깔끔하고 강단 있는 분이셨다. 하나 지난해부터 인지기능이 떨어져 아기가 되어버렸다. 삼십 분 전만 해도 천천히 먹겠다고 하시더니 금세 시장하신

모양이었다. 쯤썩하게 부엌으로 들어가 프라이팬에 조기를 구워 상을 차렸다.

몹시 시장하셨는지 밥을 푸기도 전에 숟가락으로 두부조림을 떠드셨다. 그 모습이 하도 어린애 같아 싱긋 웃었다. 요즘 난 뒷집에서 밥 먹을 때가 많다. 홀로 계신 뒷집 엄마의 식사를 거들고, 함께 밥을 먹기 위함이다. 혼자 밥 먹는 쓸쓸함을 헤아리기 때문이다.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당신의 집으로 오신 게 벌써 세 번째. 보름 전, 집으로 왔을 땐 가까스로 일어서서 지팡이를 짚고 걸으시더니 한결 나아졌다. 앞산 자락이 봄빛으로 환하니 뒷집 엄마의 얼굴도 밝아졌다.

해마다 봄이면 참꽃 별정계 피었다며 나보다 먼저 봄을 느끼던 분이셨다. 신체기능이 호전되고 우울 신경불안증이 떨어지니 인지기능도 나아졌다. 입맛까지 돌아왔는지 차려 주는 밥을 남기지 않으신다.

뒷집 엄마가 보름 동안 집을 비운 사이 빈 마당엔 햇살과 바람만 놀다 갔다. 집에 홀로 두지 않겠다며 딸이 모시고 갔지만, 난 대문을 닫지 않았다. 방치된 집이 되지 않도록 틈틈이 가서 마당을 쓸어 고요함을 깨웠다.

병원에서 뒷집 엄마는 집으로 오겠다며 성화를 부렸다. 하늘땅도 안 보이는 곳에 가두어 두었다며 원망했다. 하도 탓하는 바람에 딸의 마음이 흔들렸다. 딸은 아무도 의논할 사람이 없다며 울먹였다. 병세로 봐선 집에 홀로 둘 수 없겠지만, 원망하는 마음이 하늘을 찌르니 난감한 듯했다.

뒷집 엄마를 근 여섯 해 동안 돌보았지만 난 고민했다. 노쇠하고 치매까지 있는 분을 돌보기란 모험 중 모험이다. 무슨 일이라도 벌어진다면 내 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이 간절히 원하시고, 친구가 안쓰러워서 결단을 내렸다. 단 하루라도 집에서 계실 수 있다면 수발해 보겠다니 모시고 왔다.

아침이면 뒷집으로 가서 쌀을 안치고, 반찬거리를 장만하여 밥을 차려드린다. 젓가락질이 시원찮아 숟가락 위에 잘게 썬 반찬을 놓아드리고 약을 챙겨드린다. 세끼 밥을 해드리는 건 온전히 나의 일이 되었고, 행여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세라 틈틈이 가서 동태를

살핀다. 가만히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보며 머리를 쓰다듬기도 하고, 손을 잡고 잘 지내보
자며 다독이기도 한다.

병원에선 마시고 싶어도 못 마셨던 커피 한 잔 타봐라 해서 웃음보가 터지기도 했다. 어
느 날엔 인지가 떨어져 당신 마음과는 달리 상처 주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 또한 내가 받
아들여야 섭섭하지 않다. 정신이 맑은 날엔 옛이야기를 주절주절해서 들어준다. 하루가
지루해도 당신이 살던 집에서 회복 중이고, 미용실에도 갈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이동할 차가 왔다. 가던 길에 뒷집 엄마는 단골 미용실에 내려드리고, 원재 오빠 내외
는 읍내 옷 가게로 모시고 갔다. 오빠는 깔끔한 옷을 한 벌 사드리고, 영선 언니는 화사한
옷과 분홍색 운동화까지 샀다. 그러자, 부부는 봄 같은 미소를 지었다. 귀갓길 미용실에
들러 영선 언니의 머리를 손질한 후 뒷집 엄마 모시고 정든 마을로 왔다.

고향에선 가만히 있어도 일이 생긴다. 어머니를 봉양하러 고향에 왔다가 옛집을 지키
려고 정착했다. 어머니는 지난해에 소천하시고, 내 손길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돌보며 숙
소를 운영하러니 하루가 출렁인다. 고단해서 쉬고 싶어도 도움을 청하면 거절할 수 없다.
외로울 틈도, 꽃 보며 마당에 서성일 시간도 줄었다. 그래도 틈날 땐 글을 쓴다.

밤잠을 설쳐 고단하지만, 그들과의 동행이 헛되진 않다. 고향의 자연이 내게 준 선물처
럼, 다랭이마을 딸로 어르신들의 남은 생에 동행할 요량이다. 소통이 쉽지 않아 때론 버
겁지만, 노쇠한 분들의 손발, 눈과 귀가 되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보람 있다.

해가 앞산으로 기울어 저녁상을 차렸더니 뒷집 엄마께서 그러신다.

“고맙다, 너는 내 딸인 기라.” 설거지를 하려던 난 가슴이 울컥한다. ‘그래, 난 다랭이마
을의 딸이야.’라며 설거지를 마쳤다.

부엌문을 여니 산야는 초록 일색이다. 한 그루의 나무가 숲의 시작이듯,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길이 헛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아름다운 동행을 꿈꾼다. ✨

천지를 품은..... 김해 무척산

 노경만 산·여행작가



고향 모교 교가의 가사 첫머리에 나오는 산이 있다. 어릴 적에는 할머니와 아버지께서 신선들의 거처라며 자주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그때는 그저 전설 같았던 이야기 속 산. 무척산이다.

무척산은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와 생림면 봉림리의 경계에 있는 산이다. 고도 702.5m로 그리 높지는 않으나 신어산과 함께 김해를 대표하는 진산의 하나이며, 거대한 바위를 많이 품고 있어 그 기세가 사뭇 우람하다. 그리고 옛 가락국과 관련된 수많은 설화가 깃들어 군데군데 볼거리 또한 만만찮은 산이기도 하다.

산행은 볼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많은 서쪽 사면을 통해 많이 하는 편이다. 무척산주차장에다 차를 대고 흔들바위나 천지 방향으로 정상을 올랐다가 가지 않은 길을 날머리로 삼아 돌아오는 길이다. 다른 길로는 상동면 백운암에서 신선암을 들렀다가 정상으로 오르는 최단거리 산행을 하기도 하고, 여덟말고개(여차고개)에서 시루봉을 넘어 능선을 타기도 한다.

신선놀음 하듯 신선봉으로.....

부산김해경전철 박물관역에서 60번이나 61번 버스를 타고 무척산입구 정류장에 내리면 된다. 공장건물 사이를 걸어 무척산주차장을 지나고 잠시 후면 흔들바위와 천지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선 갈림길에 도착한다. 본격적인 산행의 들머리이다. 흔들바위 쪽으로 길을 잡으면 시작부터 오르막이다. 길이 험하지는 않으나 제법 가파른 오르막이 계속 이어진다.

첫 번째 조망은 흔들바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터진다. 내내 오르막을 걷다가 첫 나무계단을 통과해 올라서면 흔들바위 전망대에 도착한다. 엄지손가락 하나만으로도 흔들 수 있다는 커다란 흔들바위가 서 있고, 앞으로 한림면 금곡마을의 작약산과 널찍한 마사들판과 굽이쳐 흐르는 낙동강이 성큼 다가와 보인다. 흔들바위는 보는 방향에 따라 다이아몬드 모양이거나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는데, 옛 나무꾼들의 쉼터였다고 한다.

흔들바위를 지나면 길은 더 가팔라진다. 가쁜 숨의 자락을 움켜쥐고, 쭉어 짜듯 많은 양의 비지땀을 쏟아내며 군데군데 나타나는 돌부리의 층계와 남은 다섯 개의 나무계단을 올라야 한다. 희한하게도 가쁜 숨이 절정에 다다를 즈음이면 기다렸다는 듯 커다랗고 평평한 조망바위가 나타나준다.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은 오름길이다.





가수 송대관님의 노래자락처럼 <한 구절 한 고비 꺾고 넘을 때>마다 나타나는 쉼터를 기대하며 쿵쾅자쿵쾅 네박자의 걸음으로 걸으면 참 좋다. 혹은 된비알에 대한 시름은 잠시 잊고 <신선봉>으로 가는 길이니 신선놀음 하듯 걸으면 더 좋다. 예사스럽지 않은 소나무가 그림처럼 자리한 바위에 턱하고 걸터앉으면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하고 시원하여 신선이 따로 없다.

가파른 오름길은 천지와 연결된 갈림길 즈음에서 마침내 끝이 난다. 이어서 울창한 숲길과 나지막한 구릉을 닮은 길을 잠시 더 걸으면 신선봉에 도착한다.

고신대학교 경건훈련원이 그림 같은 산정연못 천지

정상에 서면 무척산 신선봉은 서쪽에서부터 북쪽까지 낙동강으로 에워싸여 있다. 천지를 품고 우뚝 선 산은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의 품에 포옥처럼 안겨있는 형세다. 조망 또한 더없이 좋아 과연 신선이 기거할만한 풍경이다.

내려가는 길은 잠시 동안 올라왔던 길을 되짚었다가 갈림길에서 천지 쪽으로 길을 잡는다. 천지까지는 숲이 우거진 무난한 내리막길이다.

산정호수라고 하기에는 그 크기가 소박한 천지는 가락국 수로왕의 봉어와 관련된 설화를 품은

산정연못이다. 깊은 산속의 고즈넉한 풍경. 천지는 마냥 고요하고, 마음 속 깊은 곳에 침잠하는 풍경이다.

그 고요한 풍경 속에 그 고요함을 빼어 닮은 <고신대학교 경건훈련원>이라는 표지석이 선 무척산기도원이 자리하고 있다. 무척산기도원은 일제강점기 일제에 항거하고 조국의 해방을 기원하며 구국기도를 드렸다는 유서 깊은 곳이다.

천지에서 조금 내려가면 천지폭포를 만날 수 있다. 수량이 많지는 않으나 산행의 피로를 잠시 달랠 수 있을 만큼 시원한 모습이다. 폭포를 지나면서부터 가파른 내리막길이 이어진다. 산허리를 휘 휘 돌며 돌아가는 돌부리 천지의 된 계단길이지만 가만 가는 내내 심심찮은 풍경들과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어 지루하지는 않다. 마치 주왕산의 그릇을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위용의 거대한 바위벽 군락과, 사연 많은 산답게 사무치는 이야기를 담은 연리지 부부소나무와, 장군바위를 비롯한 각양각색의 바위 무더기를 만날 수 있다.

무척산 산행은 가락국 허황후의 애뜻한 고향생각 사연이 깃든 모은암 아래 주차장에 도착하면서 끝이 난다. 지금은 떠나가신 옛 어른들의 구수한 이야기와 재 너머 고향생각이 사무치게 어스름의 산그늘처럼 드리우고 있다. ✧



복음병원
명의를
만나다

 구유진 기자·고신언론사

혈액종양내과 **이은미** 교수

내 환자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대한민국 사망 원인 1위는 바로 ‘암’입니다. 국민 10명 중 3명이 암으로 목숨을 잃고 있죠. 원인은 다양합니다. 서구적인 식습관과 운동 부족 등의 생활환경 변화를 비롯해 평균수명의 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암 발생률과 유병률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암은 이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중요한 질환이며 앞으로 그 중요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혈액종양내과는 이처럼 중요한 암 치료에 있어 진단과 치료, 연구, 교육을 시행하는 핵심적인 분과입니다. 특히 예전보다 진단과 치료 방법이 다양해짐으로써 혈액종양전문의의 역할이 과거와 비교하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이은미 교수 역시 임상경험을 토대로 축적된 비결과 연구, 학회 활동을 통한 새로운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수행 중입니다. 아울러 병원 내 타과 의료진과 함께 환자 개개인에게 가장 적절한 맞춤 치료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매우 다양한 편입니다. 우리병원이 오래전부터 암 전문병원으로 유명하잖아요. 장기려 박사님께서도 간암을 치료하셨고요. 저희는 암 환자를 치료하는 모든 항암제와 연관된 일을 하는데, 확실히 옛날보다 환자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또 암 치료제나 항암제의 종류도 좋은 선택지가 많아지면서 환자들의 생존 기간도 길어지고 있어요. 위암은 소화기내과에서, 폐암은 호흡기내과에서 보는데 그럼 종양내과는 무엇을 치료하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희는 모든 암 환자의 항암 치료를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액종양내과는 각종 악성 종양(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진료과로, 백혈병이나 림프종 같은 혈액 질환을 다루는 혈액내과와 고형 종양을 다루는 종양내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환자들을 수술과 항암제, 방사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합니다. 그 중 항암 치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항암제라고 말하는 약이 들어가는 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 중에서는 수술이나 항암 치료 후에 잘 회복되어 보통 5년이 지나면 완치 판정을 받습니다.

물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10년이 넘도록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지내는 환자도 있죠. 하지만 혈액종양내과 환자들에게는 ‘완치’보다 ‘전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니까 말이죠.

“물론 힘든 상황에서 치료하고 좋아져서 일상생활도 가능해지는 경우도 예전보다는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혈액종양내과 의사로서 보람이죠. 제가 전공의 2년 차일 때, 10대 후반 남자 환자였어요.

팝핀 춤을 추는 아이였는데 다리에 골육종이 생겨서 수술과 항암을 같이 진행했고 완치를 기대했죠. 그 환자는 수술은 서울에서 하고 항암은 우리 과에서 했는데 어느 날 백혈구가 떨어지면서 심한 바이러스 감염이 와서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어요.

무녀독남이라 부모님들도 엄청나게 힘들어하셨는데 점점 안 좋아져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순간이 됐죠. 그 시점에서 하루만 지나면 좋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치료가 잘 됐는데 전공의가 끝나고 와보니 폐에 전이 돼서 수술하고, 서울에서 펠로우를 하고 내려와 보니 이번에는 췌장 전이로 또 수술했더라고요.

아! 이 아이는 이제 힘들겠다고 생각했는데 잘 견뎌냈어요. 뇌 전이도 있었는데 그것도 수술해서 지금 치료가 끝난 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외래진료 받으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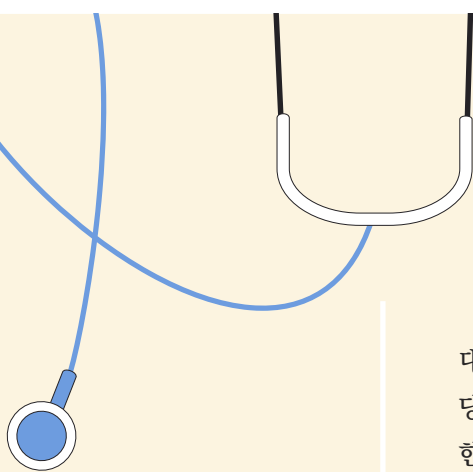
지금도 가끔 연락 오는 데, 어느덧 30대가 됐네요. 여러 번 재발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잘 이겨낸 그 환자 기억이 많이 나곤 해요. 하지만 결국 목숨을 잃는 환자도 있어요. 여전히 그런 순간은 참 힘들지만, 신앙생활이 많은 부분 위안을 줍니다.

환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요. 죽음이란 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깐요.” 여러 번의 고비를 이겨낸 환자와 곁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보호자의 모습을 여전히 기억하는 이은미 교수가 생각하는 명의의 모습은 ‘내 환자에게는 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유명한 병원의 아주 유명하신 교수님들보다 환자들을 향한 관심과 애정은 절대 작지 않다는 것 오히려 더 크다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병원은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많은 교수님이 계시고, 저 또한 환자에게 더 관심과 애정으로 치료하는 의사가 되려고 합니다.”

암처럼 큰 질병이 생기면, 대부분은 서울에 있는 유명 대형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서울의 병원에서 더 좋은 치료 방법이 있다면 고민할 여지가 없고, 또 지역병원과 비교하면 다양한 연구와 기회도 있어 장점도 있을 테지만, 고신대복음병원에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의사와 진료 때문에 만나는 의사에게 위안을 받는 환자가 있습니다. ➡

복음병원
명의를
만나다



심장혈관흉부외과 **문정민** 교수

투석혈관에 진심을 담아 환자 삶의 질 높인다.



‘심장혈관흉부외과’는 인체 중심인 흉부에 있는 심장, 폐, 식도, 대동맥, 종격동, 횡경막 기관 등의 질환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담당합니다. 이 흉부 장기는 생명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장기이므로 심장혈관흉부외과는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은 물론 최첨단 의료 시설을 갖추고 최상의 진료를 수행해야 하죠.

심장혈관흉부외과 문정민 교수는 지난 3월에 부임한 새내기 교수로 투석혈관과 당뇨병, 하지정맥류 질환 이 3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신대복음병원으로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투석혈관, 만성 콩팥병증 환자들을 위해서입니다. 투석은 우리가 흔히 병원에서 맞는 링거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투석혈관은 투석환자에게 꼭 있어야 하고, 누군가는 그걸 만들어줘야 하는데 정말 잘 만들어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몸의 동맥과 정맥은 미세 혈관으로 이어져 있지만 투석로는 인위적으로 동맥과 정맥을 직접 연결합니다. 따라서 압력이 높은 동맥에서 압력이 낮은 정맥으로 혈액이 이동하게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 벽이 비후돼 투석로가 좁아지면서 협착되거나 폐쇄될 수가 있죠.

이때 투석로 시술 또는 수술이 필요하고요. 투석로를 잘 만드는 수술이 비록 생사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투석환자에게 투석로는 생명선과 같으므로 문정민 교수는 더욱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투석로 수술을 잘해놓으면 환자가 30년 이상 사용하시기도 하거든요. 반면 투석로 때문에 고생하시는 환자들의 모습도 여러 번 봤습니다. 환자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투석로 시술과 수술은 제가 노력하면 할수록 투석 환자들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정민 교수는 전문의 취득 후 서울의 빅5로 꼽히는 대형병원 폐식도외과에서 펠로우(전임의) 생활을 하면서 많은 수술 경험을

통해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손꼽히는 혈관질환통합병원인 허균 홍부외과에서 투석로에 대한 시술과 수술 등 투석혈관의 모든 것을 차곡차곡 준비했죠.

예전에는 투석혈관을 지금처럼 정교하게 공을 들여 만들지 않았던 이유가 투석환자의 생존 수명이 짧아서였다면,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콩팥 질환으로 혈액 투석을 하면서도 8, 90살까지 살아갈 수 있을 정도가 됐으니까요.

20여 년 전 투석환자를 대략 9만 명쯤(2020년 기준)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8만 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환자의 숫자는 예상보다 적은 편이지만, 환자의 기대 수명 자체가 늘었기 때문에 투석혈관에 진심인 의사의 필요성은 더 커 보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은 아닙니다만, 고신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고신대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했고,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었죠. 하나님의 뜻으로 의사가 됐을 테니,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실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

막연하게 의미 있는 의사가 되고 싶었던 어느 날, 홍부외과 교수님께서 집도하시던 수술방에서 심장을 만져보게 됐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환자가 살아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 보람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예요...

투석환자가 자가 혈관이 없으면 인조혈관을 만드는데 환자 삶의 질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인조혈관이 조금이라도 눌리면 막혀버리니까 잠을 자는 자세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불편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홍부외과의 매력에 빠진 문 교수였지만 술하게 고민도 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관상동맥 우회술이나 폐 이식처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이 아닌, 투석혈관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투석환자들의 삶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투석 혈관에 집

중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사망했을 때, 제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지금도 처음 사망한 환자를 기억할 정도예요. 그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야 다른 환자에게도 피해가 없을 테니까요. 저의 무력함과 부족함을 의지할 곳은 오직 신앙밖에 없습니다. 신앙을 통해 새로 달려나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투석환자들에게 투석하는 병원은 두 번째 집과 같은 것입니다. 몸과 마음 모두 지치고 불안한 가운데서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친근한 사투리와 활기찬 진료로 다가서는 문정민 교수! 부산 지역에서 투석혈관과 당뇨발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의사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명의의 모습은 바로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고신 사람이라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환자를 생각하시는 따뜻한 마음은 물론 간담체외과에서도 손꼽히는 실력까지 겸비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분의 걸음을 따라가도록 노력 중이고요...

제가 사투리가 심한데, 울산 20년 살고 부산에 몇 년 살다가 서울 가서도 사투리를 고칠 이유가 없어 안 고쳤어요. 환자분들이 좋아하세요. 그렇다고 제가 환자분들께 치료에 관해 설명했을 때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심하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친근함도 필요하지만 이건 부수적인 거고 의사의 근본은 실력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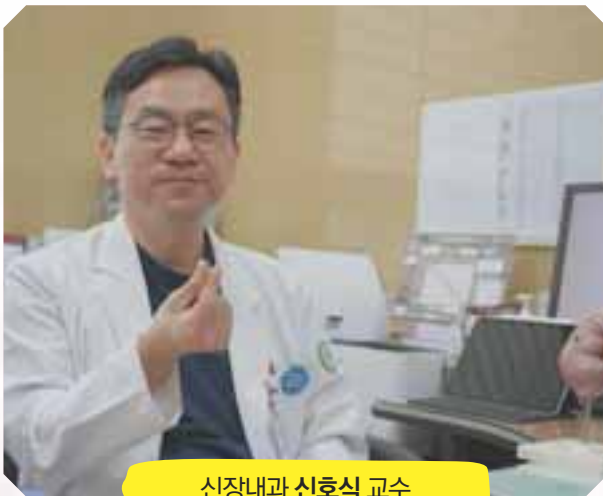
고신대복음병원에 가면 혈관 깨끗하게 해준대! 투석혈관 하면, 문정민 교수에게 가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

제2의 장기려 박사님을 찾아서

환자와 병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료의 모습, 닮고 싶습니다. 칭찬합니다!
일터를 사랑하고, 환자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폈던 초대병원장故 장기려 박사님
제2의 장기려 박사님을 찾습니다! 칭찬 릴레이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조직문화로 자리잡기 바랍니다.

이태화 진료부원장님 추천

늘 지극정성으로 환자를 돌보시고
항상 병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신장내과 **신호식 교수님**을 칭찬합니다.



신장내과 **신호식 교수**

귀한 자리에 추천받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추천해주신 이태화 부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스승님이신 신장내과 임학 교수님께 환자를 대하는 자세와 신앙
적인 부분을 많이 배웠고, 함께 일하는 선·후배 교수님들을 통해
지금도 많이 배우며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병원에서 일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섬기고 기도하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료지원부 홍광표 대표실장님 추천

내시경검사실 복도에 걸린 액자퍼즐 보신 적
있나요? 그 많은 퍼즐을 맞추고 액자로 만들어
거신 분이 있습니다.
내시경검사실 **김경미 수선생님**의 열정과
병원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칭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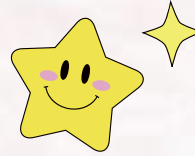


내시경검사실 **김경미 수간호사**

부족하지만 칭찬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소화기내과 교수님들과 내시경실 식구들은 어려운 병원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내시경실을 방문하는 환자, 보호자분들이
마음 편안하게 치료 받고 언제든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공부하고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지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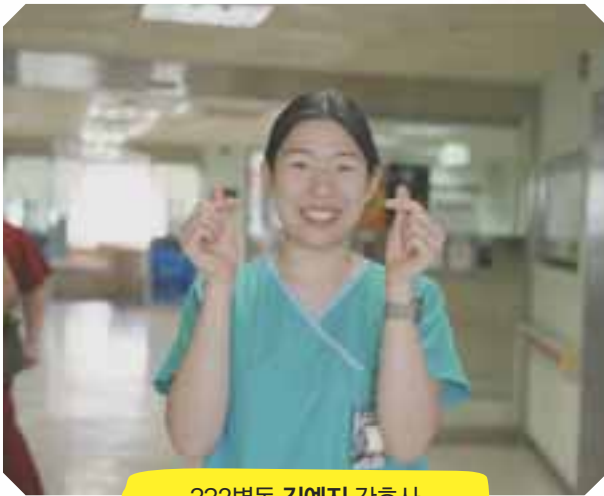
332병동 박예은 선생님 추천

332병동 **김예지** 선생님을 칭찬합니다.
처음 입사했을때부터 선생님께 일을 배웠습니다.
환자분들의 요구사항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꼼꼼히 설명하고 해결해주려 하십니다. 모르는 것
을 물어보면 늘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후배, 학생,
환자분들도 김예지 선생님을 찾아 더 질문하게 되
는 것 같습니다^^ 어린 환자들부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환자분들까지 정답게 대하시고, 칭찬을 여
러번 들으시는 김예지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더
잘 버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봐요~



관리부 윤수진 선생님 추천

원무부 **최은정** 선생님을 칭찬합니다!
늦은 시간 병원에 도착해 몸도 마음도 바쁠 환자를
대신해 직접 발로, 전화로 조율해주는 모습에
많이 배웠습니다.
병원에서의 환자의 처음이자 마지막 경험일
원무부 따뜻하고 밝은 모습으로 환자를 대하시는
선생님의 모습, 존경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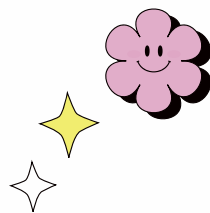
332병동 김예지 간호사

칭찬릴레이를 통해 평소 환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늘 밝은 얼굴이었는지, 환자의 입장
을 충분히 공감하였는지, 부족하지만 칭찬릴레이로 선정해주어
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미소로 환자를 섬기고, 우선으로 생각하
는 간호사가 되길 다짐하고 소망합니다.



원무부 최은정 주임

원무부에 근무한지 35년 3개월을 투덜대지 않고 감사하며 즐겁
게 섬긴 보람을 느낍니다.
환자에게 저와의 경험이 단순한 수납과정이 아닌 고신대학교복
음병원에서의 좋은 경험이 되도록 더 분발하겠습니다. 뜻밖의 격
려에 감사합니다.



To be continued 가을호에서 계속됩니다 💖

2024년 3월 ~ 5월

★ 내원객이 칭찬해주신 **우리 병원 친절직원**

3월1주차	김주연 교수(이비인후과) 김보경 간호사(503병동) 김예지 간호사(504병동) 이소희 간호사(504병동) 강민경 간호사(504병동) 양혜지 간호사(341 병동)
3월2주차	김윤수 교수(성형외과) 김예지 간호사(332병동) 342병동 최장혁 주임(영상의학과) 신미연 책임간호사(508병동)
3월3주차	정원길 교수(완화의학과) 525병동(호스피스) 조하은 간호사(504병동) 강민정 간호사(362병동)
4월1주차	이은정 간호사(361 병동) 신용희 수간호사(332병동) 이경진 책임간호사(332병동) 허은 간호사(332병동) 정유경 간호사(332병동) 박예은 간호사(332병동)
4월2주차	김혜경 수간호사(351 병동) 성선희 간호사(503병동) 안진주 간호사(503병동) 김예지 간호사(504병동)
4월3주차	이호섭 교수(혈액종양내과) 강민정 간호사(362병동) 주은혜 간호사(위장관외과) 장은정 간호사(심장내과)
4월4주차	정소학 교수(정형외과) 김지연 교수(정형외과) 조하은 간호사(504병동) 이유진 책임간호사(351병동)
4월5주차	이정욱 교수(간담체내과) 박수연 간호사(351 병동) 조혜수 간호사(호흡기내과) 김한나 간호사(호흡기내과)
5월1주차	신성훈 교수(혈액종양내과) 김민주 책임간호사(혈액종양내과) 정미영 간호사(혈액종양내과) 김현중 의료기사(재활치료실) 김윤정 책임간호사(503병동) 조근희 간호사(재활의학과)
5월2주차	주명진 책임간호사(WOCN) 박배원 간호사(정형외과) 유승미 간호사(503병동)
5월3주차	옥철호 교수(호흡기내과) 503병동 362병동
5월4주차	김민주 책임간호사(혈액종양내과) 진민경 간호사(504병동) 362병동 김혜원 간호사(503병동)



최근 3개월 병원에 비치된 고객의 소리함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고객님의 빠른 쾌유와 편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칭찬 한마디가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원목실 추천도서



고백의 언어들 | 나의 인생, 나의 하나님

김기석 | 복있는사람 | 2024.04.01.

책소개

우리 시대의 목회자이자 설교자, 기독교 사상가, 김기석 목사의 고별 메시지!
"김기석 목사의 삶과 신앙, 경험과 통찰의 정수를 담다"

이 책은 우리 시대의 목회자이자 설교자, 기독교 사상가인 김기석 목사의 고별 메시지다. 오랜 세월 청파교회를 섬겨 왔고 은퇴를 앞두고 있는 그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CBS '질질법'(잘 믿고 잘 사는 법)을 비롯한 방송 및 온라인 설교를 통해 국내외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 특히 그의 설교와 강연은 풀리지 않는 인생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 교회 안과 밖에서 서성이는 이들, 시대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의 막힌 숨을 틔워 주었다.

이 책에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고자 달음질해 온 한 고독한 구도자의 삶과 신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수많은 설교와 강연, 저술을 해온 그이지만, 이 책은 그것들과는 사뭇 성격을 달리한다. 오롯한 한국의 기독교 사상가로서 김기석의 면모가 고스란히 녹아 있기 때문이다. 김기석 목사는 43년을 목회자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음을 고백한다. "목회 은퇴를 앞두고 그동안 내가 만났고 지금도 여전히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차분하게 돌아보고 싶었다. 이 책에는 아주 낯선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절대 타자로서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귄이 주는 기쁨과 든든함, 그리고 안다 싶은 순간 또다시 낯설어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저자소개 | 김기석

김기석 목사는 광와 같은 현실에서 예언자의 목소리를 내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따뜻하게 보듬는 목회를 해왔다. 교회에서는 다정하고 유쾌한 목사로, 밖에서는 자진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다하였다. 그의 설교는 열린 신앙과 도처한 자성, 분방한 상상력이 녹아든 완성도 높은 문학 작품이자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이다. 문학과 철학을 포함한 고급의 문자 텍스트뿐만 아니라 음악과 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작품들도 소환한다.

김리교신학대학교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청파교회 전도사, 이화여고 교육, 청파교회 부목사를 거쳐 1997년부터 청파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김리회 출판국(kmc)에서 처음 책 '새로 봄'을 썼고, '말씀 등을 밝히고', '김기석 목사의 청년 편지',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태도', '당신의 친구는 안병환가', '일상 순례자' 등 많은 책을 썼으며, 옮긴 책으로 '마르틴 루터의 단순한 기도' 등이 있다.

[출처: 예스24]



60세의 마인드셋 |

최고의 노인정신과 전문의가 말하는 60 이후 행복을 결정하는 7가지 태도

와다 히데키 제이은혜 역 | 현대지성 | 2024.05.10.

책소개

나이 들수록 행복한 사람들은 마인드셋이 다르다.

"늙어서 즐거워야 진짜 성공한 삶이다!"

60세, 과거에는 사회 일선에서 물러나 회갑 잔치를 하고 '고령자'라 불리는 나이였지만 이제 스스로 노인이라 생각하는 60대는 없다. 의학 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획기적으로 늘었고 백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살날이 길어지면서 오늘날 60대는 은퇴로 인한 해방감과 남은 인생에 대한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는 나이가 됐다.

일본 최고의 노인정신의학의 전문가인 와다 히데키는 지난 30년간 고령 환자들을 돌보며 60대 이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후 40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켜봤다. 그는 마인드셋을 달리하는 것만으로 노년의 삶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60세에 준비해야 할 '마인드셋 7개명'을 정리해 이 책에 소개한다.

와다 히데키는 무엇보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고 신경 쓰는 습관에서 벗어나 인생을 즐겨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참고 억누르기만 한다면 남은 인생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인생을 즐기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밖으로 나가 돈 쓰고 하고 싶은 것 하며 놀기, 자녀에게 유산 물려주지 않기, 건강검진 그만두기 등 역발상적이고 생생한 조언을 내놓는다. 얼핏 모순되게 들리지만, 조언을 하나하나가 전두엽의 노화를 늦춰 일상의 활력을 지키고, 자식 걱정 얽매이지 않으며, 불필요한 다이어트나 다약제 복용을 막아 건강을 더 오래 유지하게 하는 검증된 팁들이다.

이 책에는 우리보다 일찍 고령화를 겪은 이웃 일본의 복지와 연금 제도 등 관련 지식과 노하우도 풍성하게 담겨 있다. 삶의 중반을 지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60대뿐만 아니라 이제 슬슬 시니어 라이프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40대 후반, 50대에게도 아주 실질적이고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면서, 남은 시간은 더 즐겁게 살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도 심어줄 것이다.

60대를 앞둔 당신, 마인드셋을 바꾸면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진다. 인생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저자소개 | 와다 히데키(Hideki Wada, わだ ひでき, 和田 秀樹)

일본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노인정신의학 및 임상심리학 전문의로 30여 년 동안 노인정신의학 분야에 종사하며 연구를 계속해오고 있다. 1960년 오사카 출생으로 도쿄대학 의학부를 졸업했다. 정신과 전문의로 도쿄대학 의학부 부속병원 정신신경과 조수로 근무했으며 미국 칼 메닝거 정신의학학교 국제연구원을 거쳐 현재 '와다 히데키 마음과 몸 클리닉'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노인 문제 외에도 심리학,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텔레비전과 라디오 출연, 단행본 집필을 하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22년 발간된 '80세의 벽'이 아마존 서적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며 누적 판매 부수 70만 부를 돌파하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노인정신의학 전문 작가로서의 명성이 한층 높아졌다.

주요 저서로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연습', '혼자 행복해지는 연습', '인생이 심플해지는 고인의 기술', '어른을 위한 공부법', '인내하드로 노화한다', '노인성 우울증' 등이 있으며, 한국에서는 '80세의 벽', '70세의 정답', '70세가 노화의 갈림길', '60대와 70대 마음과 몸을 가다듬는 법', '이렇게 하니 윤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도 나도 치매는 처음인데, 어떻게 하지?', '내 꿈은 놀면서 사는 것' 등 다수의 책이 출간되었다.

[출처: 예스24]

진료를 시작합니다



내분비내과
김봉천 교수

+ 전문진료분야

내분비내과질환



내분비내과
김부경 교수

+ 전문진료분야

비만,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해외연수 후 진료재개



내분비내과
박성우 교수

+ 전문진료분야

당뇨병



심장혈관흉부외과
문정민 교수

+ 전문진료분야

투석로, 말초혈관질환, 하지정맥류



완화학과
공섬김 교수

+ 전문진료분야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유방외과
최진혁 교수

+ 전문진료분야

유방암, 유방양성질환

해외연수 후 진료재개



정형외과
심대우 교수

+ 전문진료분야

척추질환, 척추 비수술적 치료



피부과
성설화 교수

+ 전문진료분야

피부가려움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피부질환, 백반증, 건선



호흡기내과
김태윤 교수

+ 전문진료분야

호흡기내과 질환

Focus View

고신대복음병원, 몽골의학협회와 의료관광활성화 MOU 체결



고신대복음병원이 몽골의학협회(대표회장 소그세섹 야유시)와 3월 11일 보건의료 분야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소그세섹 야유시 박사는 몽골 국립피부와 병원 병원장과 전 몽골 보건부장관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몽골의학협회 대표회장을 맡아 그동안 고신대병원의 몽골의료 교류의 중개자 역할에 큰 도움을 준 바 있다. 병원을 방문한 야유시 회장은 지난해 고신대병원이 몽골 울란바토르 현지에서 진행된 의료관광 설명회에도 참석했으며, 야유시 회장의 소개로 다르항·아르항가이 등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도 직접 현지 설명회장을 찾아와 관련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고신대병원은 2014년부터 몽골의 다양한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였으며, 의료관광을 넘어 비대면 해외원격의료, 의사연수,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ICT 사전사후관리 상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K메디컬 수출을 통한 몽골 보건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2024.03.13.]

‘사람의 마음 치유할 수 있는 예술’ 고신대복음병원, 미술관이 된 병원



병원은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곳이다. 고신대복음병원은 이러한 병원의 본연의 기능을 넘어서 ‘예술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상시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호평을 얻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3년 전 코로나 팬데믹과 파업 관련 벽보로 어수선한 로비 분위기가 순식간에 따뜻함을 주는 공간으로 변모했다”면서 “이제는 환자들이 내원할 때마다 새로운 작품을 볼 수 있는 기대감을 갖게 됐다”고 달라진 병원의 분위기를 전했다. 고신대병원 갤러리는 병원 내 유동인구가 많은 6동 로비에 갤러리를 갖추고 있다. 기독교에는 전인치유라는 용어가 있다. 육체적인 치료뿐 아니라 영적인 치료 즉 마음의 치료도 함께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병원 갤러리가 앞으로 어떤 특색을 지니고 변화해 나갈지 주목해볼 만하다. 치료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믿음이 음악치료, 미술치료, 독서치료를 포함한 완화의료의 형태인 전인치유로 발전해 나가길 바래본다.

[2024.03.14.]

이비인후갑상선두경부외과 이강대교수, 대한갑상선학회 범산학술상 수상



이강대 교수가 최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4 대한갑상선학회에서 범산학술상을 수상했다. 범산학술상은 이 학회의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평생을 갑상선학 연구에 정진하고 탁월한 업적과 후학 양성에 매진한 갑상선 전문가에게 학회가 수여한다. 갑상선학 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학술활동을 장려하고자 고 범산 교창순 선생의 뜻에 따라 2007년 제정됐고, 대한갑상선학회 및 갑상선학 연구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세운 만 40세 이상의 평생회원에게 평생에 한 번 수여하는 상으로 국내를 대표하는 갑상선관련 내,외과, 핵의학과 전문의들이 수상을 하고 있다. 이강대 교수는 갑상선 암수술에서 목소리 신경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피부전극 신경모니터링법’을 세계 최초로 국제학술지에 보고했다. 또 이교수는 외과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부갑상선을 찾아내는 ‘부갑상선 자가형광 이미징법’을 부경대 의공학과 안예찬 교수팀과 함께 세계 최초로 보고했고, 부갑상선을 식별하는 장비도 개발하여 특허처의 승인을 받았다.

[2024.03.20.]

Focus View

고신대복음병원, 휴일 반납하고 김해 다문화가족 무료진료



고신대복음병원이 3월 31일 김해 합성초등학교에서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이번 무료진료에는 호흡기내과 옥철호 교수를 비롯해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와 치과가 참여했으며 합성초등학교 재학생과 가족 70여명이 이날 진료를 받았다. 경남김해교육지원청이 김해 지역이 다문화 교육 특구를 추진함에 따라 중도 입국 및 외국인 가정 학생 건강보험 미등록에 따른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문화 학생 및 가족의 의료보전 지원으로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감대가 고신대병원과 형성됐다. 지난해 8월 경남김해교육지원청과 다문화 가족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 어린이 및 가족들에게 지속적인 의료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김해동강초등학교에서 무료진료활동을 펼친 바 있다.

[2024.04.02.]

고신대복음병원,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지원사업 참여기관 선정



고신대복음병원이 보건복지부의 '2024년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지원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지원 사업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고신대병원은 중증질환으로 치료 중인 소아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통합적 의료 서비스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소아암을 비롯한 소아청소년에서 발생하는 중증 질환의 경우 치료 과정이 어렵고 예후가 불확실해 호전 여부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으며 장시간 치료가 필요하다. 환아와 가족들은 돌봄 과정에서 다양한 신체적, 심리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지원 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통증 및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심리적·사회적·영적 고통을 완화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한다. 고신대복음병원 관계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를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지원사업도 성공적으로 수행해 지역을 선도하는 병원의 사명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4.04.19.]

고신대복음병원 제11대 병원장에 최종순 교수



학교법인 고려학원이사회는 4월 25일 제73-2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최종순 교수(가정의학과, 기획조정실장)를 제11대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병원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2024년 5월 7일부터 3년이다. 신임 병원장으로 선출된 최종순 교수는 고신대학교 의과대학(8기 입학)을 졸업하고 대외협력실장, QPS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대한노인병학회 영남지회 이사장을 비롯해 대한가정의학회 부울경 회장 등 대외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고용량 처방의 비타민 박사로서 불리는 최종순 교수는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 2019에 등재되기도 했으며,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라이온스클럽, 국민의료보험공단과 함께 다문화 가정과 국내외 의료사각지대에서 꾸준히 의료봉사를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21년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부산광역시의회 의회대상 사회봉사상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오늘도 장거리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를 출간해 의료인의 사명을 일깨웠다는 평을 듣기도 했다.

[2024.05.07.]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달아 드려



고신대복음병원 5월 8일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드리는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종순 병원장 첫 취임행사이다. 어버이날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보호자들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이 밀집한 중환자실은 면회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최종순 병원장을 비롯한 보직교수들은 입원환자와 면회가 제한된 가족들을 위해 직접 병실을 방문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최종순 병원장은 “취임 첫 행사로 전 병동을 돌면서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쾌유를 기원했다”며 “건강한 노후, 행복한 가정을 위해 2000여명 교직원들도 건강도시 구현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05.08.]

고신대복음병원, ‘제6회 외과학연수강좌’ 성료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이 5월 18일 장기려기념암센터 대강당에서 ‘제6회 외과학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실제 임상에서 필요한 암의 최신 지견, 첨단 의료, 진료실에서 흔히 만나는 질환들에 대해서 최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외과 교수진들과 개원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최종순 병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방을 대표하는 외과 의사들이 주말을 반납하고 가슴 답답한 합병증의 증례에 대한 좋은 의견을 듣고, 동료들의 첨단 술기와 환자관리에 대한 좋은 정보를 얻는 등 의료발전을 위한 계속된 노력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연수에 참가한 참가자에게는 대한의사협회 3점의 연수 평점이 주어졌다.

[2024.05.20.]

최종순 병원장 1000만원 기부, 기부문화 활성화의 새로운 시작점 되길 소망



최종순 병원장이 5월 28일 병원 기부벽 앞에서 병원발전을 위한 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하면서 기부행렬에 동참했다. 교직원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화합과 혁신을 위한 병원발전 공모전도 개최해 모든 교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도 했다. 기부금을 전달하면서 최종순 병원장은 “병원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기부에 참여하게 됐다”며 “기부를 통해 환자사랑, 병원사랑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 11대 병원장 이·취임식에서는 화환대신 기부금을 모아 기부문화 정착의 시작이 되고자 하는 바램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2024.05.28.]



Q.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라, 2024. 5.20. 부터 모든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Q. 본인확인은 왜 하나요?

- 첫째,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해요.
- 둘째,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어요.
- 셋째,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요.

Q. 본인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 **내원환자** : 요양기관(병의원)에 방문하여 진료 접수 시, 신분증명서 제시
- ▶ **요양기관** : 환자가 제시한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확인

Q.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무엇인가요?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
- 신분증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Q. 본인확인 예외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확인 예외 대상입니다.
- 19세 미만인 사람
 - 해당 요양기관 6개월 이내 재원환자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진료의뢰·회송 받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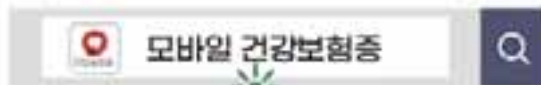




**신분증을 놓고 가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h-well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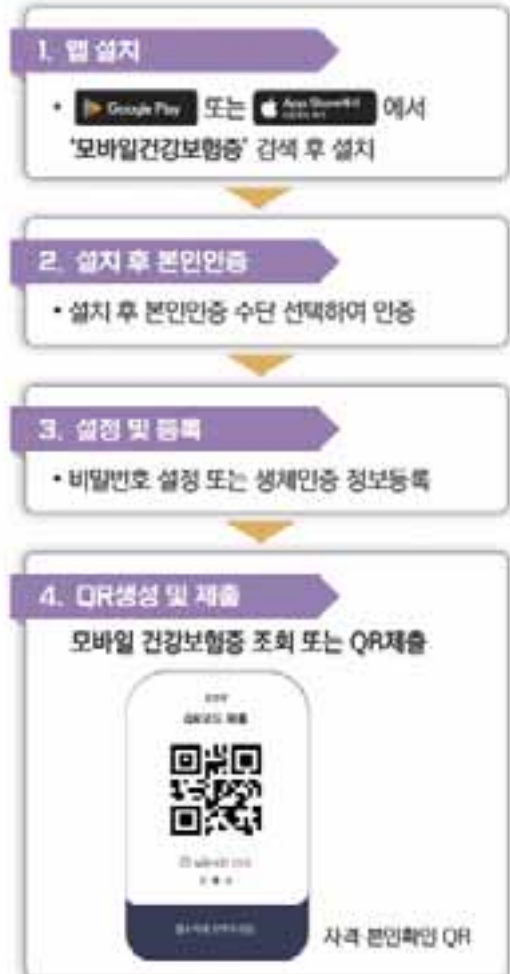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건강보험증 조회

자격·본인확인 QR로
간편하게 진료 접수

※ 자격·본인확인 QR 접수는 일부 병·의원에서만 가능합니다.

Q.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및 사용방법




앱 설치용 QR코드

한도리트 용 아이폰 용



외래진료시간표

2024년 6월 기준

※ 대표전화 ☎990-6114, 991-0675, 응급의료센터 ☎990-6119
※ 진료문의는 ☎990-6114, 진료예약은 990-6900 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진료과	교수명	오전	오후	전문진료분야
가정의학과	최 종 순	화,목,금	월,목	비타민 고용량요법, 암의 보완통합요법, 특이증상클리닉(자율신경 실조증), 만성피로클리닉, 노인의학
	공 은 희	월,수	월,수	비만, 임상영양, 금연, 기능의학
	강 지 훈	화,금	화,금	근골격계 통증클리닉, 자율신경주사, 만성두통, 암 경험자 평생 건강관리, 성인예방 접종, 금연클리닉, 유전체기반 비만 클리닉, 만성피로클리닉, 노인의학
간담도췌장외과· 이식외과	신 동 훈	월,목	월	간, 담도, 췌장, 이식외과
	최 영 일	화,금	화	간이식, 간담도, 혈관, 간담췌클리닉
	문 형 환	수	수,목	간, 담도, 췌장, 이식, 혈관
	조 지 훈	수	화,금	간, 담도, 췌장, 이식, 혈관
간담췌내과	이 상 욱	월,수	월	간,담도,췌장 질환(간암, 간경화증, 급,만성 간염)
	서 광 일	화,목	화,수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암, 간부전, 간이식
	박 현 준	화,목,금	목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암, 간부전, 간이식
	이 정 욱	월,수,금	목	췌장·담도계 질환 (담석증, 담낭염, 담관염, 담관암, 담관암, 급·만성 췌장염, 췌장암, 췌장낭종)
감염내과	진 술	화		감염내과
내분비내과	김 부 경	화	월,수	비만,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박 성 우	월,수,목	화	당뇨병
	박 태 훈	화,금	월,목,금	내분비(당뇨)질환
	김 봉 천	월,목	화,수	내분비내과질환
대장항문외과	안 병 권	화,목		대장암, 직장암, 대장직장클리닉
	이 승 현	월,수	월,수,목	대장항문클리닉
	이 승 훈	해외연수		대장, 탈장, 복강경 로봇수술
두경부갑상선 내분비외과	이 지 은	월,화	화,수	갑상선암, 갑상선질환, 부갑상선질환, 로봇갑상선수술, 갑상선최소절개수술
	양 송 이	해외연수		갑상선암, 갑상선질환, 로봇갑상선수술, 부갑상선질환
	김 구 상	수		로봇갑상선수술(경구,액외), 갑상선암, 고주파열치료, 조직검사, 세침검사
류마티스내과	김 근 태	해외연수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루푸스, 통풍, 퇴행성관절염, 섬유근육통, 혈관염, 베체트병, 관절초음파 클리닉
	김 윤 경	월,화,목	화,수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루푸스, 통풍, 퇴행성 관절염, 섬유근육통, 혈관염, 베체트병, 관절 초음파클리닉
마취통증의학과	류 시 정	월,목		통증관리
	김 두 식	화	목	통증기전연구, 만성통증치료, 암성통증관리
	강 동 희	금	화,금	급만성통증의학, 암성통증, 부위마취, 대사비만수술마취, 신체감정
	김 지 욱	수	수	통증관리, 중환자의학, 뇌신경마취, 산과마취
방사선종양학과	박 경 란	월,화	수,목	유방암, 간담췌암, 뇌종양, 방사선수술
	마 선 영	수,금	월,수	유방암, 부인과종양, 허부소화기종양
	최 지 훈	화,수	화,목	폐암, 흉선종, 식도암, 특수방사선치료, 고식적방사선치료
	유 제 상	월,금	월,화,금	두경부암, 비뇨기암, 림프종, 혈액암, 피부암, 근골격계종양, 특수방사선치료, 고식적방사선치료
비뇨의학과	류 현 열	월,수		오로종양,전립선,신장이식
	최 성	화,목	월,목	전립선, 여성비뇨기, 종양
	김 택 상	월,수	수	비뇨기종양, 로봇수술
	강 수 환	화,목	화	로봇수술, 결석
산부인과	서 원 태	금	화	비뇨기계 일반질환
	김 원 규	화,금	화,금	부인암, 종양, 내시경수술, 로봇수술, 단일공수술
	이 태 화	월,수,목	월	부인암, 내시경수술, 부인종양
	오 영 림	월,목	목	고위험 임신, 조산
성형외과	윤 향 구	화,금		모체태아의학, 고위험 임신, 조산
	강 태 경	수,목		일반 부인과 질환, 부인과 내분비학
	김 은 택	수	수	부인질환(근종, 난소종양, 자궁내막증, 자궁탈출증), 부인종양, 부인암, 부인암 유전상담, 폐경, 로봇수술, 내시경수술(부인암 분과전문 의)
	박 진 형	월	월	유방재건, 미세수술, 미용
소아청소년과	이 형 석	월,수,금	수	당뇨발, 욕창, 피부암, 눈성형, 두경부재건, 소아성형
	김 홍 일	해외연수		수부질환, 수부외상, 선천기형, 두개안면외상, 피부종양, 흉터성형
	김 윤 수	화	화,목	유방재건 및 유방성형, 체형성형, 미용/흉터 성형, 피부종양, 안면골절
	홍 우 라	목	화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예방접종
소아청소년과	정 유 진	수,금		미숙아 및 신생아 질환(신생아 발열, 신생아 황달, 저체중출생아, 자궁내 성장 지연, 폐렴, 무호흡, 신생아 호흡 곤란 증후군, 신생아 일과성 배변 호흡, 태변 협착 증후군, 신생아 지속성 폐동맥 고혈압, 기관지폐형 이상, 신생아 감염, 신생아 simple 폐렴, 위장 장애, 영아 건강 검진, 예방 접종)
	이 정 현	월,수,목		성장클리닉(성조숙증, 저신장), 내분비대사질환(고신장, 사춘기 지연, 갑상선질환, 당뇨병, 저혈당, 비만, 갑상 및 인 대사 장애, 기타 영양 장애)
	연 규 민	월,수	금	소아신경질환(뇌전증, 편두통, 발달지연, 뇌염, 뇌수막염, 신경근질환, 열성경련)
	공 섬 김	월,목,금	화	소아혈액종양질환(백혈병, 림프종, 고형종양, 혈관종, 골수부전, 조혈모세포이식, 빈혈, 혈우병, 자반증, 출혈성질환), 소아청소년 안과치료
소화기내과	정 민 영	화	월,목	소아 알레르기질환(식품알레르기, 경구면역치료, 중증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천식/비염 면역치료, 약물알레르기, 만성두드러기), 소아 호흡기질환(만성기침, 폐렴, 간질성폐질환, 기침용 인공호흡기 관리 등), 중환자의학
	최 소 윤	화,금	수	소아소화기염상분과(소아소화기질환(위장관, 간담췌장), 소아염증성성장질환(크론병, 궤양성대장염), 영양질환, 비만, 저체중,소아위장관내시경)
	박 선 자	월,수	월,화	궤양,물혹,암,염증,신경
	박 무 인	월,목,금	수	궤양,물혹,암,염증,신경, 기능성위장관질환, 소화기암
소화기내과	문 원	화,목	화,목	크론병,궤양성대장염클리닉, 소화기질환
	김 성 은	화	수,목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관련 질환, 위암, 식도암, 소화기질환
	김 재 현	수	월,금	대장암 클리닉, 유전성 대장 폴립 증후군, 대장 폴립 절제술, 소화기질환
	정 경 원	해외연수		치료 내시경(조기 식도암, 조기 위/대장암), 아칼라지아(POEM), 위암, 식도암, 용종, 기능성 소화기질환
신경과	최 윤 정	수		소화기질환
	손 민 영	목		소화기질환
	박 지 혜	금		소화기질환
	이 명 훈		목	소화기질환
신경과	유 봉 구	월,화,수	화	뇌졸중,치매,두통
	김 명 국	수,목	월,화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김 민 정	금	금	파킨슨병, 이상운동질환
	이 진 형	화,금	화	뇌졸중, 뇌혈관질환, 신경중재치료
신경외과	전 병 준	목	월,수	다발성경화증, 사신경척수염, 말초신경병, 근육병
	조 혁 래	월,수	월	뇌종양,두개저종양, 삼차신경통, 안면경련
	박 정 현	화,목	화	뇌혈관 중재적 수술치료,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박 민 철	화	화,목	신경외과 척추질환, 척추 및 두부 외상
신경외과	김 도 연	월	월,수	경추 및 요추 디스크, 협착증, 전방전위증, 척추종양, 척추변형, 두부외상, 척추외상
	심 용 우	수, 금	수,금	뇌혈관질환, 뇌종양, 뇌혈관중재치료,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두부외상



외래진료시간표

2024년 6월 기준

※ 대표전화 ☎ 990-6114, 991-0675, 응급의료센터 ☎ 990-6119

※ 진료문의는 ☎ 990-6114, 진료예약은 990-6900 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진료과	교수명	오전	오후	전문진료분야
신장내과	임 학	월,수,목	수	신장질환, 사구체질환, 신증후군, 만성신부전(만성콩팥병),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생체이식, 혈액형불일치이식, 뇌사이식)
	정 연 순	화,목	화	다낭콩팥병클리닉, 신장이식, 만성콩팥병, 급성신손상, 당뇨병성콩팥병, 사구체신염(혈뇨, 단백뇨), 요로감염
	신 호 식	월,수	월,수,목	신장이식, 투석, 신부전, 사구체신염, 당뇨병성 콩팥병, 노인성 콩팥질환, 요로감염
	김 예 나	화,금	월,화	신장질환
	박 병 화		금	신장내과 일반진료
심장내과	차 태 준	월,화,금	월,화,목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부정맥, 임상심장전기생리학, 침습적심장학, 세포심장학
	허 정 호	월,수,목	화	심혈관 중재시술, 심부전 심근경색, 협심증, 고혈압, 심장재활, 부정맥
	임 성 일	월,수,목	수	부정맥, 급사 및 실신, 허혈성 심질환, 심부전
	김 봉 준	해외연수		심부전, 협심증, 고혈압
	김 수 진	화,금	수	순환기, 심장초음파, 심장판막질환, 고혈압, 심부전, 협심증, 여성심장
심장혈관흉부외과	박 성 달	월,목		일반흉부, 폐암, 종격동종양
	김 종 인	화	월,화	일반흉부, 폐기종, 기흉, 폐암, 식도암, 종격동종양, 다한증, 흉부외상
	조 성 호	수	화,수	성인심장질환, 관상동맥질환, 판막질환
	이 해 영	월,목	월	대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정맥질환, 흉부외상, 성인심장질환, 체외막산소화장치
	고 태 용	금	수,목	일반흉부, 폐암, 종격동종양
	문 정 민	화,수	목	투석로, 말초혈관 질환, 하지정맥류
	이 상 호		금	일반흉부, 기흉, 흉부외상
안과	이 상 준	목	월,화	망막, 포도막, 백내장, 안외상, 눈물길 유리체망막클리닉, 포도막염클리닉
	이 승 욱	월,수	목	녹내장, 백내장, 각결막질환
	김 창 주	금	수,금	사시, 소아안과, 신경안과, 안종양, 안외상, 눈물길, 근시
	임 준 현	화,금	수	망막, 포도막, 유리체, 백내장
알레르기내과	김 희 규	월,수,목	월,목	만성기침, 기관지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식품알레르기, 급만성 두드러기, 혈관부종, 접촉성 피부염, 약물 알레르기, 호산구증가증, 각종 알레르기 질환, 면역결핍질환
	최 길 순	해외연수		천식 및 비염, 아토피 피부염, 만성 두드러기, 약물 알레르기 및 각종 알레르기 질환, 호산구 관련 질환
완화의학과	오 지 현	화,금	화,수	만성기침, 천식 및 비염, 아토피 피부염, 만성 두드러기, 약물 알레르기 및 각종 알레르기 질환, 호산구 관련 질환 등 ※매일 둘째주 금요일 오후 휴진※
	정 원 길	월,화,수,목		호스피스 완화의료
위장관외과	공 성 김		월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윤 기 영	월,목	월	위장, 복강경 위장관 수술(위암, 위장관 기질 종양)
	서 경 원	화,수	화	복강경 위장관 수술(위암, 위식도역류질환), 대사비만수술, 탈장
	김 기 현	금	수,금	복강경 위장관 수술(위암, 위장관 기질 종양), 대사비만수술
유방외과	김 윤 홍		목	복강경, 위암, 위장관 기질 종양, 대사비만수술
	정 성 의	화,목	화	유방암, 로봇유방수술, Young age 유방암, 유방양성질환
	김 구 상	월	월,목	로봇유방수술, 유전성 유방암, 입체정위생검
	최 진 혁	수,금	수	유방암, 유방양성 질환
응급외과	정 주 원		화	응급외과
	김 영 식		수	응급외과
이비인후갑상선 두경부외과	이 강 대	월,목,금		갑상선 수술, 부갑상선 수술, 신경모니터링 수술
	이 환 호	목	월,수	중이염, 어지럼증, 이명, 난청, 인공와우이식
	권 재 환	수,금	화	*종이수술, 난청, 이명, 어지럼증, 귀의 염증, 삼출성 중이염, 고막질환, 소아 귀 질환, 인공와우이식, 선천성 이개질환, 귓볼 클로이드, 중이 전주종비개: 축농증, 비성형, 안면재건, 안와굴절, 비굴절, 코피산재 특별 진찰*
	이 형 신	월,수	화	두경부 종양(구강암, 비인두암, 후두암, 설암, 갑상선암, 침샘암, 이하선암) 성대 보톡스, 성대 필러
	김 주 연	화	월,목	부비동 내시경 수술, 코성형술, 코골이, 알레르기, 수면무호흡 증, 코성형 클리닉, 코피
	김 영 준	화	수,금	두경부 종양(구강암, 비인두암, 후두암, 설암, 갑상선암, 침샘암, 이하선암), 인후통, 편도, 성대, 혀마름, 임파선 비대, 목의 혹, 입술
재활의학과	김 기 찬	해외연수		뇌졸중, 노인재활, 골다공증, 암재활
	정 호 중	월,화,수,금	화	척수손상 재활, 경직치료 재활
정신건강의학과	심 영 주	목	월,수,목	소아재활, 림프부종 재활, 근골격계 질환, 암재활
	김 호 찬	목	월,수	공황장애, 불안장애, 기분장애, 정신치료, 재발방지클리닉 및 낮병동(조현병, 기분장애)
	이 상 신	월,수,금		자문조정정신의학, 정신신체의학
	김 현 석	화,목	화	소아청소년과 정신의학(ADHD, 틱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자적장애, 소아청소년 기분장애/불안장애 등)
	전 공 의	월,수,금	월,수,금	
	권 영 호	월	수	
정형외과	정 소 학	화,목		수부, 주관절, 흉곽출구증후군
	김 창 수	금	월,수,목	근골격계종양, 고관절, 대퇴부
	김 지 연	월,수	목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등의 척주질환, 척추종양, 척추측만증을 포함한 척추기형, 척추외상
	심 대 무	화,수,목,금	월,화	족부(발,발목) 질환 및 외상, 당뇨발 및 창상(고압산소치료)
				척추질환, 척추 비수술적 치료
직업환경의학과	김 정 원		월	신경독성학, 직업성 알레르기 질환(천식, 피부), 직업성 암, 직업병 산재보상, 업무적합성 평가
	정 지 현	화,금	화,금	직업성질환, 특수건강진단, 업무관련성평가, 업무적합성평가
	배 현 숙	월,목	월,목	직업성질환, 특수건강진단, 업무관련성평가, 업무적합성평가
	오 현 철	월	화	근골격계 산업재해 특별진찰,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관련성평가
치과	김 희 진	화,목	월,화,목	치과보존과
	서 고 은	월,수,금	수,금	구강악안면외과 일반질환(구강내 종양, 감염, 외상, 임플란트, 매복치, 턱관절 질환 및 기타 치과 질환)
	강 은 숙	화,수,금	화,금	치과 보철과 일반질환
	김 민 경	월,목	월,수,목	치주과 일반진료
피부과	장 민 수	월,수	월,수	여드름/주사, 간선, 손·발톱색소질환
	박 종 빈	해외연수		피부종양, 피부암, 알레르기피부질환
해의학과	서 기 석	화,금	금	피부암, 무좀 및 잔균성질환, 모발질환, 수포성질환 및 결체조직질환, 혈관질환
	성 설 화	화,목	화,목	피부기려움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피부질환, 백반증, 간선
	김 희 영	월,수		해의학과 일반진료
혈액종양내과	신 성 훈	월,화,금	수,목	위암, 대장암, 두경부암, 폐암, 간담도암, 유방암, 비뇨기암 등의 항암 약물치료
	이 호 섭	화,목	월,화	다발골수종, 악성림프종, 급성백혈병, 만성백혈병,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재생불량성빈혈 등 혈액암 및 혈액질환
	이 은 미	수,목	월,금	위암, 대장암, 유방암, 담낭암, 췌장암, 난소암, 자궁암 등의 항암 약물치료
	김 다 정	월,수,금	목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재생불량성빈혈 등의 혈액암 및 혈액질환
	정 현 엽	월,화	수,금	혈액종양내과 일반진료
호흡기내과	정 만 흥	금	화	폐암, 천식, 기관지염, 결핵,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장 태 원	월,수,목	수	폐암, 천식, 만성기관지염, 결핵,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옥 철 호	화	수,목,금	폐암, 만성폐쇄성 폐질환
	김 태 윤		월	호흡기내과 일반진료



KOSin 사랑in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당신은 사랑in입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교직원들은故장기려 박사님의 애민정신을 이어 받아 국내·외 경제적으로 빈곤한 환우들의 치료에 힘쓰고, 의료 활동 이외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에게 섬김의 자세로 다가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일, 저희들의 기쁨이며 소망입니다.





SNS를 통해서도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새로운 병원 소식과 유익한 건강정보를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통해서도 전하고 있습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공식 SNS채널을 팔로우 해주세요.

Follow me

지금 바로 카메라 앱을 열어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Youtube



<https://www.youtube.com/@GospelHospital>

유튜브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검색 후 채널 구독



블로그



<https://blog.naver.com/kugh1951/>

네이버 블로그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검색 후 이웃 추가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osinmed1951/>

인스타그램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검색 후 팔로우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서 환우분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찾습니다.
몸과 마음을 위로받고 치유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사연은 병원 소식지에 싣고,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분량 : A4 2~3매의 원고

○ 사연 보내실 곳 : pr3700@daum.net 또는 고객지원센터(3동1층)



초대병원장 장기려 박사

우리는 그를
아름다운 의사라 부릅니다.
마음까지 치료한 의사라 부릅니다.
의로운 의사라 부릅니다.
바보의사라 부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를 닮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뜻을 살려 헌신하길 원하는
백년의 약속

우리는 그를 존경하며 오늘도
전인치유를 실천 합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

